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2Q

2022
vol.27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외 VC 시장 동향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Market Watch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Q 2022
Vol. 27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이영민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1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05

2 해외 VC
시장 동향

17

3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55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2년 2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01

모태펀드 개요

-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포함
- ** 전체 투자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2022년 6월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8조 2,15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변동이 없다. 반면 외부출자금은 소폭 증가한 23조 1,272억 원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1,038개*, 34조 2,464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 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796개, 27조 8,631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8,803개사**에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 모태펀드 운용 현황



02

모태 출자펀드 결성

2022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2년 4~6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1개, 4,847억 원 규모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스틱이노베이션펀드(GP:스틱벤처스)'로 2,322억 원 규모이다. 전반적으로 스케일업 및 청년창업 외 나머지 펀드들의 결성총액은 260억 원 미만 수준으로 성격별 펀드 규모의 편차가 크다.

표 1 — 2022년 2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스케일업	스틱이노베이션펀드	벤처투자조합	스틱벤처스	2,322	500	4.29
중진	사회적기업	임팩트스퀘어 사회적기업 디딤돌 2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임팩트스퀘어	60	45	5.11
중진	스마트 대한민국	스마트루트ML펀드	벤처투자조합	루트벤처스	150	45	5.11
중진	스마트 대한민국	스마트안다-오택케어 그린뉴딜펀드	벤처투자조합	안다아시아벤처스	254	40	6.10
청년	청년창업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1호	벤처투자조합	아이엠엠 인베스트먼트	1,066	200	4.04
혁신모험	기술기업 첫걸음펀드	킹슬리 SAFE 엔젤 4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킹슬리벤처스	162	150	4.08
혁신모험	기술기업 첫걸음펀드	스파크랩 테크 퍼스트 스텝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스파크랩	152	150	5.13
문화	모험투자	이에스9호K콘텐츠펀드	벤처투자조합	이에스인베스터	200	140	6.16
문화	모험투자	보광 모험콘텐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보광인베스트먼트	123	73	6.23
도시재생	도시재생	씨씨브이씨 우리동네 도시재생 펀드 II	벤처투자조합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125	100	5.11
특허	IP직접투자	아이비피 IP Value UP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아이디어브릿지 파트너스	234	140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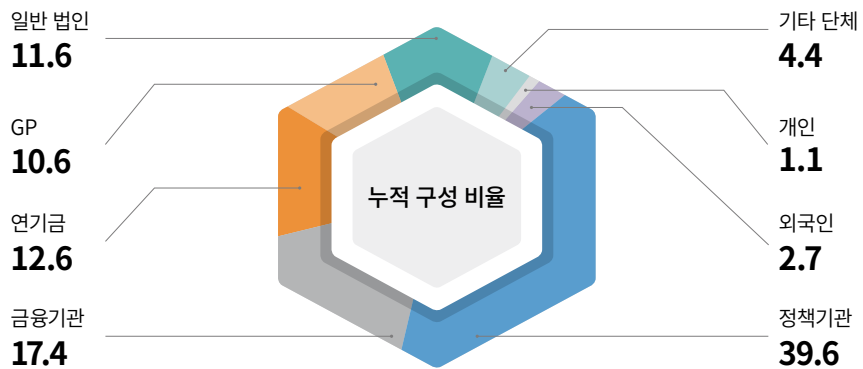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2년 6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3조 5,721억 원(39.6%)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5조 9,620억 원(17.4%), 연기금 4조 3,013억 원(12.6%)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 또한 정책기관 다음으로, 금융기관(2,451억 원), 연기금(1,87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2.06	3,159	2,451	1,875	575	1,164	372	300	211	10,106
누적	135,721	59,620	43,013	36,147	39,724	15,048	3,881	9,310	342,464

* 결성연도 기준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 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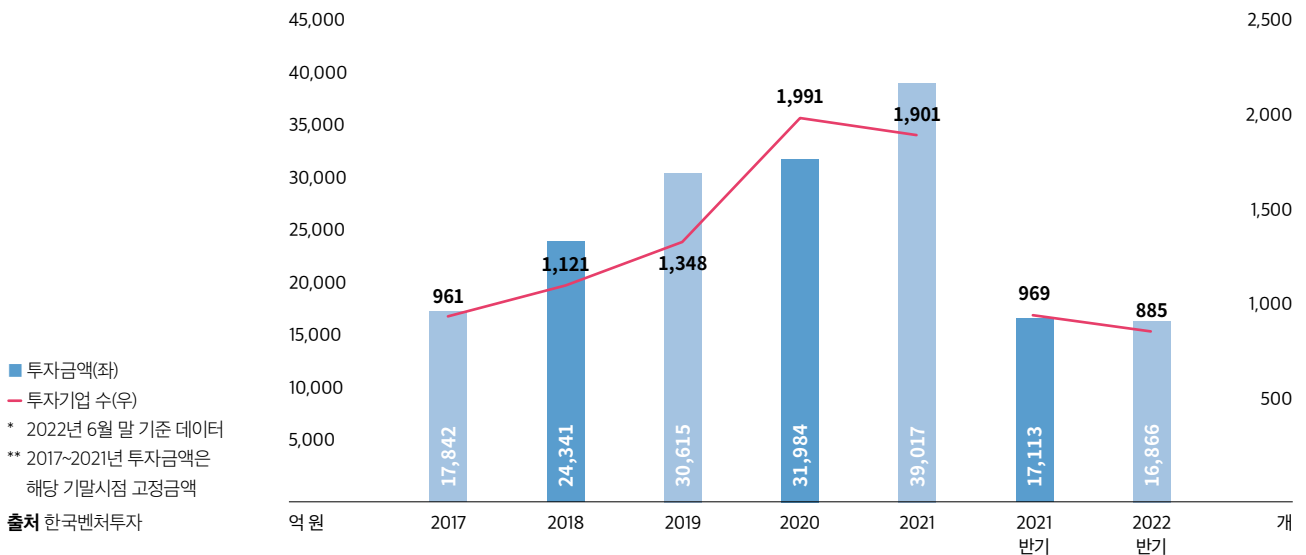
03

모태 출자펀드 투자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2년 반기 기준으로 360개 모태 출자펀드가 885개 기업에 총 1조 6,866억 원을 투자하였다.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과 기업 수 기준 모두 각각 1.4%, 8.7%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3 — 최근 5년 투자 추이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2년 반기 기준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1개의 투자기업당 평균 19.1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약 19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위기업으로의 투자금 집중현상은 직전 분기 대비 심화되었다. 다만, 투자금액 상위권 기업들의 업종은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다.

표 3 — 2022년 기준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브이에이코퍼레이션	영상/공연/음반	영상	1	310
2	○○○○○	유통/서비스	전문서비스	1	272
3	컨텍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5	250
4	볼빅	기타	기타	1	238
5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의료	의료용물질/의약품	6	220
6	리벨리온	ICT제조	반도체/전자부품	3	155
7	○○○○○	화학/소재	고무/플라스틱	4	150
8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2	133
9	비엔에이치리서치	유통/서비스	전문서비스	6	120
10	제이엘캠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2	120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력별 신규 투자

* 총 투자기업 수 885개(조합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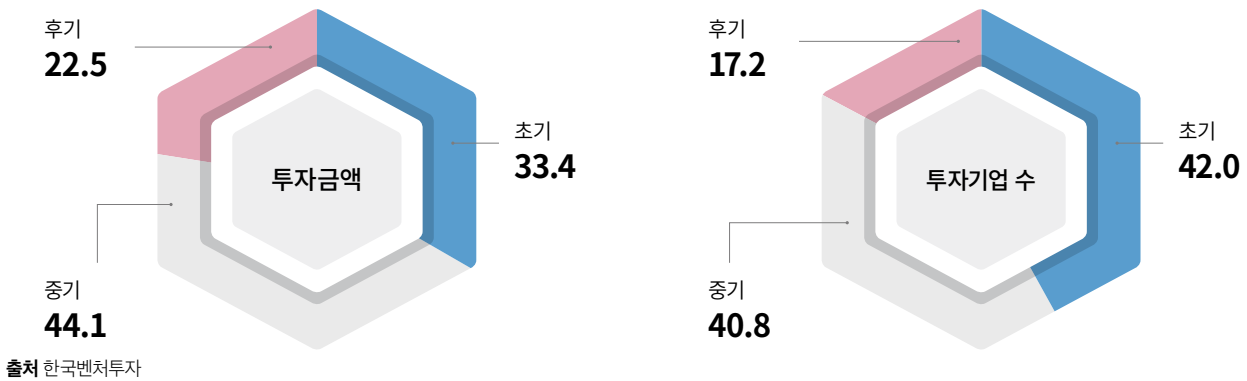
2022년 반기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5,632억 원(33.4%),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7,431억 원(44.1%),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3,803억 원(22.5%)이 투자되었다.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기업 374개사(42.0%), 중기기업 363개사(40.8%), 후기기업 153개사(17.2%)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나 투자기업 수는 3.6%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만큼 중기 및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9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중기기업과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각각 211억 원, 1,294억 원 감소하였다. 투자기업 수 또한 중기기업과 후기기업은 각각 11개, 25개 감소했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업력별 차별화를 나타냈다. 초기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15.1억 원을 기록하며 연 초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중기기업은 20.5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후기기업은 2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그림 4 —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단위: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2022년 반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 투자가 1조 1,865억 원(70.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3,749억 원(22.3%),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1,252억 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규모와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방향성은 상이했다. 비수도권은 5.0% 소폭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해외는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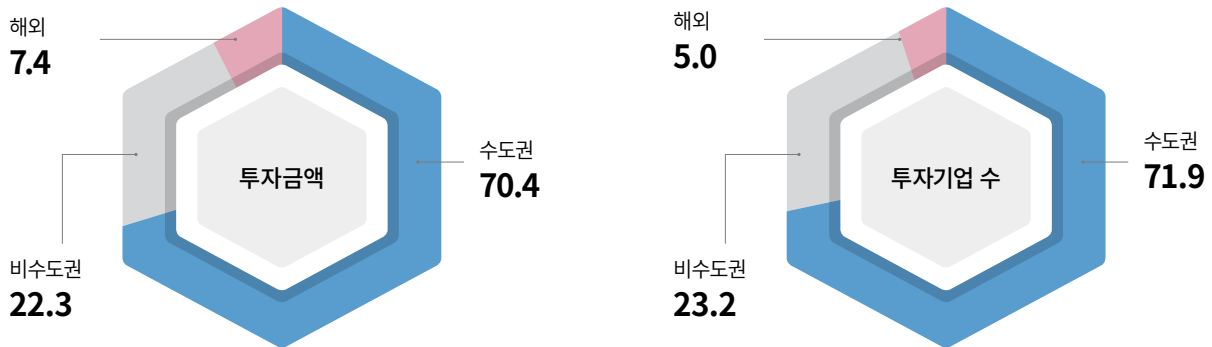
수도권 내 투자금액은 세부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은 6.0% 증가한 8,479억 원을 기록했으나 증가속도는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과 업체 수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인천의 경우 2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의 투자금액은 전체 지역 내에서 약 10.7%를 기록했으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한 202억 원을 기록하며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대전은 899억 원을 기록하며 5대 광역시 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3.2% 감소한 41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 지방은 94개 기업에 1,950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지역 내에서 약 11.6%를 기록하였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경남에 392억 원이 투자되며 기타 지방 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에 132.5% 증가한 272억 원이 투자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전북지역이 37억 원으로 전체 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5 —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단위: %)



* 총 투자기업 수 885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 구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출처 한국벤처투자

2022년 반기 기준 출자펀드 신규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계속해서 ICT서비스로 총 4,639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투자 규모의 27.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의료 3,243억 원(19.2%), 유통/서비스 2,861억 원(17.0%) 순이다. 투자금액 상위 3개 업종은 전년 말 대비 변동이 없으나 바이오/의료의 투자금액 증가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전체 투자금액의 비중은 63.7%를 차지했다. 한편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화학/소재가 24.6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그림 6 —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단위: %)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27.5
2	바이오/의료	19.2
3	유통/서비스	17.0
4	영상/공연/음반	9.2
5	기타	7.3
6	전기/기계/장비	7.0
7	화학/소재	5.6
8	ICT제조	3.8
9	게임	3.5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29.8
2	유통/서비스	19.9
3	바이오/의료	14.9
4	영상/공연/음반	12.0
5	기타	7.3
6	전기/기계/장비	6.2
7	화학/소재	4.0
8	게임	3.2
9	ICT제조	2.8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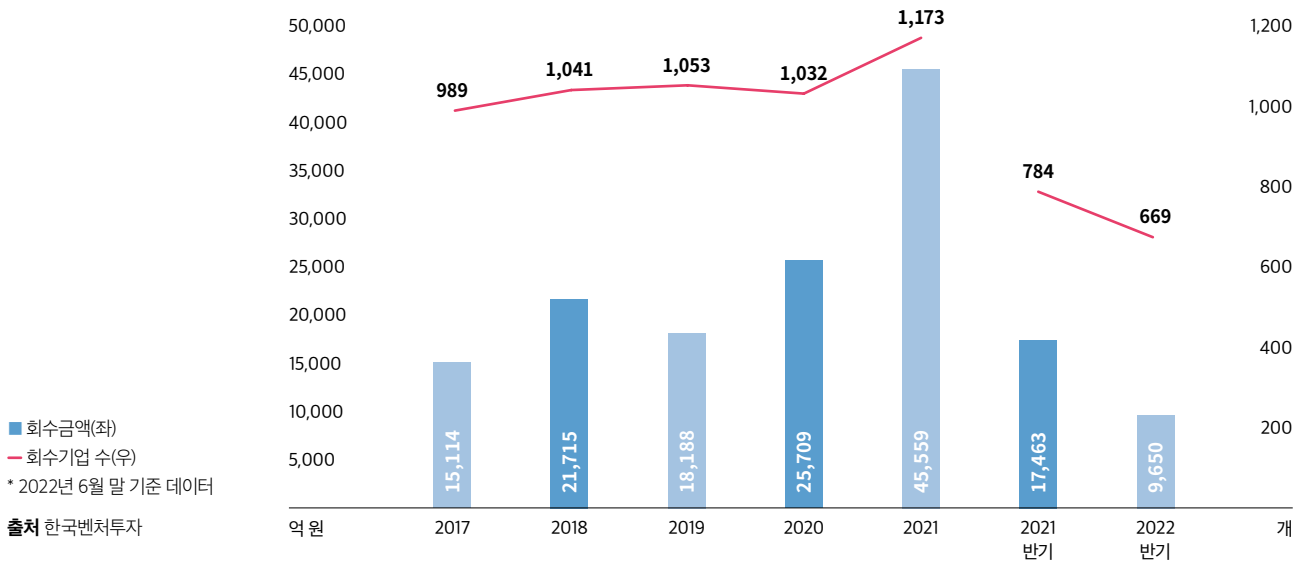
04

모태 출자펀드 회수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2년 반기에는 385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669개 기업을 통해 총 9,650억 원(회수원금 4,192억 원, 회수수익 5,458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2.3배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44.7% 감소했으며, 기업 수 기준으로도 14.7% 감소했다.

그림 7 - 최근 5년간 누적 회수 추이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2년 반기 기준 업종별로 ICT서비스(3,246억 원, 33.6%)와 유통/서비스(1,255억 원, 13.0%)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CT서비스 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2,392억 원(24.8%)의 회수가 이루어지며 여전히 업종 내 회수 규모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모태 출자펀드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반기에 1,092억 원의 회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ICT서비스 기업들은 다수 상위권에 포함해있는데 회수총액 기준으로 5개의 기업이 10위권 내, 수익배수 기준으로는 4개의 기업이 10위권 내에 포함해있다.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2년 2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5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22년 6월 말 기준 신규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수는 36개사이다.

표 4 - 2022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포바이포	코스닥	2017.08	2022.04	302	4,519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범한퓨얼셀	코스닥	2019.12	2022.06	854	4,201	잠수함용 연료전지모듈,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구축
보로노이	코스닥	2015.02	2022.06	520	3,710	표적치료제
청담글로벌	코스닥	2017.12	2022.06	304	1,570	글로벌 화장품 유통
레이저셀	코스닥	2015.04	2022.06	256	1,462	에어리어 레이저솔루션, LSR, LCB, LSB, BSOM 등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표 5 — 2022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진행 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넥스트칩	코스닥	2019-01-02	상장예정	자동차에 적용되는 카메라향 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공급
루닛	코스닥	2013-08-23	상장예정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영상분석진단 소프트웨어
아이씨에이치	코스닥	2012-08-14	상장예정	EMI 가스켓, 필름형 안테나
에이프릴바이오	코스닥	2013-01-30	상장예정	항체 라이브러리 및 SAFA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통한 신약 개발
영창케미칼	코스닥	2001-07-28	상장예정	계면활성제, 반도체공정재료
대성하이텍	코스닥	2001-09-20	심사 승인	공작기계
사페론	코스닥	2008-10-01	심사 승인	합성신약 및 항체신약 개발
성일하이텍	코스닥	2017-03-24	심사 승인	2차전지 소재 재활용 사업
쏘카	유가증권	2011-10-31	심사 승인	카셰어링 및 카헤일링 서비스(타다)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코스닥	2017-12-06	심사 승인	반도체 Submemory system IP, 딥러닝 IP
이노롤스	코스닥	2007-01-11	심사 승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네오랩컨버전스	코스닥	2009-02-19	심사 중	스마트펜
뉴로메카	코스닥	2013-02-14	심사 중	산업용 협동로봇(COBOT) 제조
디티앤씨알오	코스닥	2017-04-03	심사 중	비임상CRO 및 분석, 임상1상 CRO
레메디	코스닥	2012-07-13	심사 중	초소형 X-선 튜브
메트로랩	코스닥	2012-06-13	심사 중	스마트 LED 조명 제조
모노리스	코스닥	2017-05-25	심사 중	테마파크 시스템
밀리외서재	코스닥	2016-07-12	심사 중	모바일 서적 정기구독서비스 및 각종 콘텐츠
바이오노트	유가증권	2003-03-28	심사 중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코스닥	2014-07-03	심사 중	경영 및 투자컨설팅
산돌	코스닥	2018-10-29	심사 중	산돌그룹 등 폰트플랫폼
쓰리빌리언	코스닥	2016-10-10	심사 중	AI기반 희귀유전질환 유전자 진단 검사
에스바이오메딕스	코스닥	2005-10-30	심사 중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생산, 세포은행, 화장품 원료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코스닥	2000-07-26	심사 중	만화영화제작, 컴퓨터 그래픽 영화 제작, 완구업
엔젯	코스닥	2009-09-09	심사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용 나노 잉크젯 프린터/코터
오에스피	코스닥	2004-06-16	심사 중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인벤티지랩	코스닥	2015-05-14	심사 중	의료기기(필러), 동물약품, 인의약품
자람테크놀로지	코스닥	2000-02-01	심사 중	기기와이어장비, XPSPON
저시스템	코스닥	2016-04-25	심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Solar Cell 장비, 부품
제이아이테크	코스닥	2014-03-28	심사 중	반도체용 프리커서 제조
제이오	코스닥	1994-11-28	심사 중	이화학측정기(연속식 종합반응기), 탄소나노튜브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스닥	2017-07-19	심사 중	면역항암제, 단백질 신약
컬리	유가증권	2014-12-31	심사 중	농수산물 유통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코스닥	2000-04-17	심사 중	리듬액션 게임개발
팜트론	코스닥	2002-01-15	심사 중	3D AOI, SPI, CI, 리드탭 검사기
플라즈맵	코스닥	2015-03-31	심사 중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 2022년 6월 말 기준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해외 VC 시장 동향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2년 2분기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01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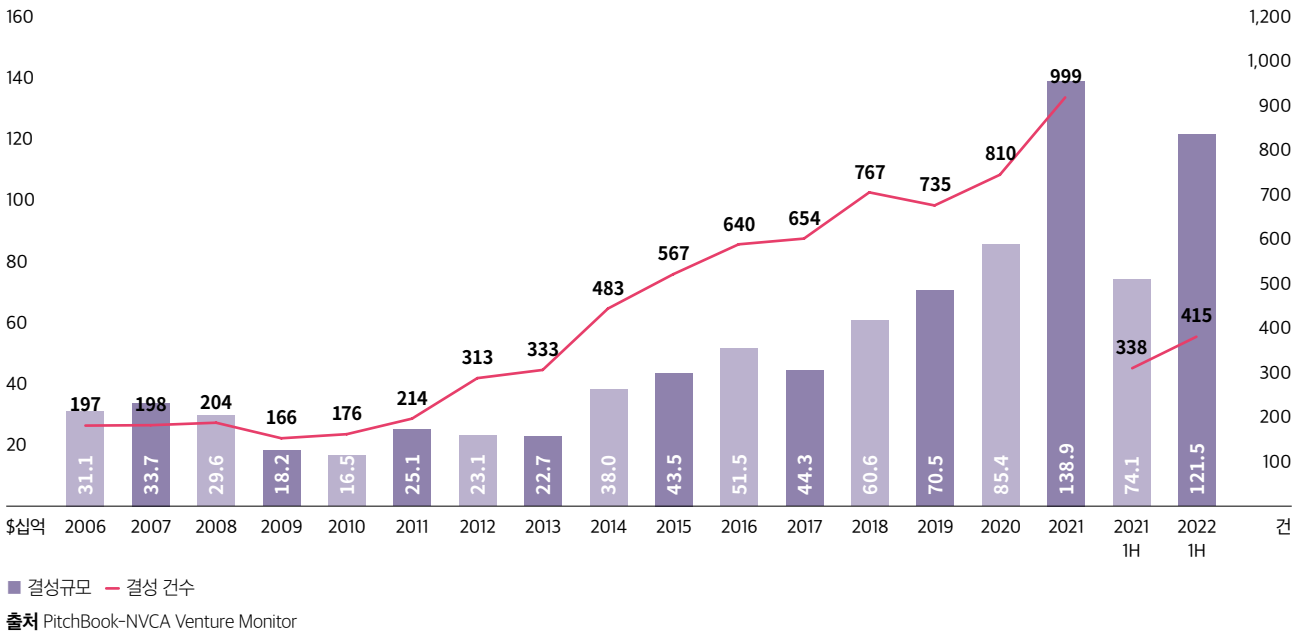
(Venture Monitor, 2022년 2분기)

결성(Fundraising)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상반기에는 6개월 동안 415개의 펀드에서 총 1,215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펀드 결성총액이 2년 연속으로 1,000억 달러가 넘었다. 2022년의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2006년 이후 미국 VC 시장의 연간 펀드 결성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Andreessen Crypto, Accel, Bond, Lead Edge Capital, Left Lane Capital 등 몇몇 대규모 펀드가 모두 10억 달러 이상으로 결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과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결성된 펀드 중 많은 수가 현재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하기 전부터 자금 조달을 논의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펀드 결성의 성공은 2021년의 좋았던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1 - 미국 VC 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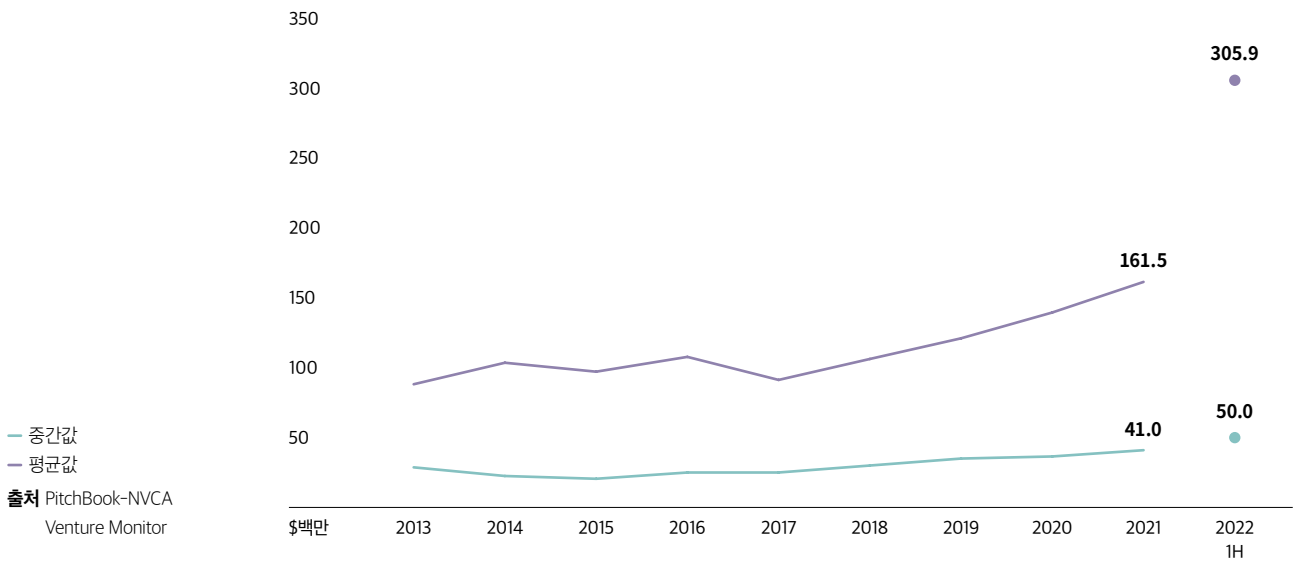
한편, 2022년 상반기에 결성된 펀드의 결성규모 구간별 비중을 보면, 5,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올해 첫 6개월 동안, 결성규모 5억 달러 이상의 펀드에 약 80%, 5억 달러 미만의 펀드에 약 20%의 비율로 자본이 배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신생 운용사들이 LP들과 관계 구축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지속적인 경기 침체 시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 미국 VC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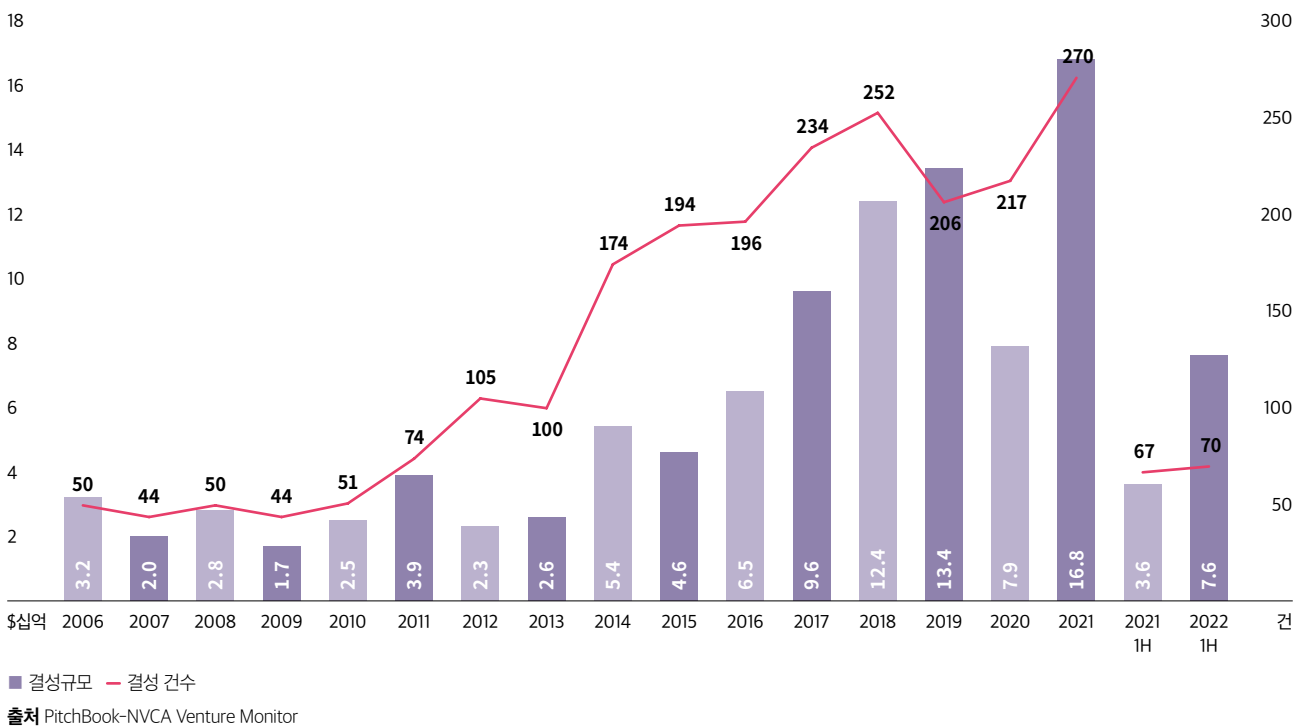
VC 펀드의 대형화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상반기 펀드 결성 규모의 중간값과 평균값은 각각 5,000만 달러 및 3억 59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4,100만 달러 및 1억 6,150만 달러에 비해 각각 22.1%, 89.4% 증가하였다.

그림 3 — 미국 VC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이러한 펀드의 대형화 추세는 최초 펀드 결성(first-time fundraising)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최초 펀드결성은 76억 달러(70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36억 달러(67건)에 비해 111.4%(4.5%) 상승한 수치이다. 건수에 비해 금액의 상승률이 매우 가파르는데, 이는 최초 펀드 결성에 있어서도 대형 펀드의 결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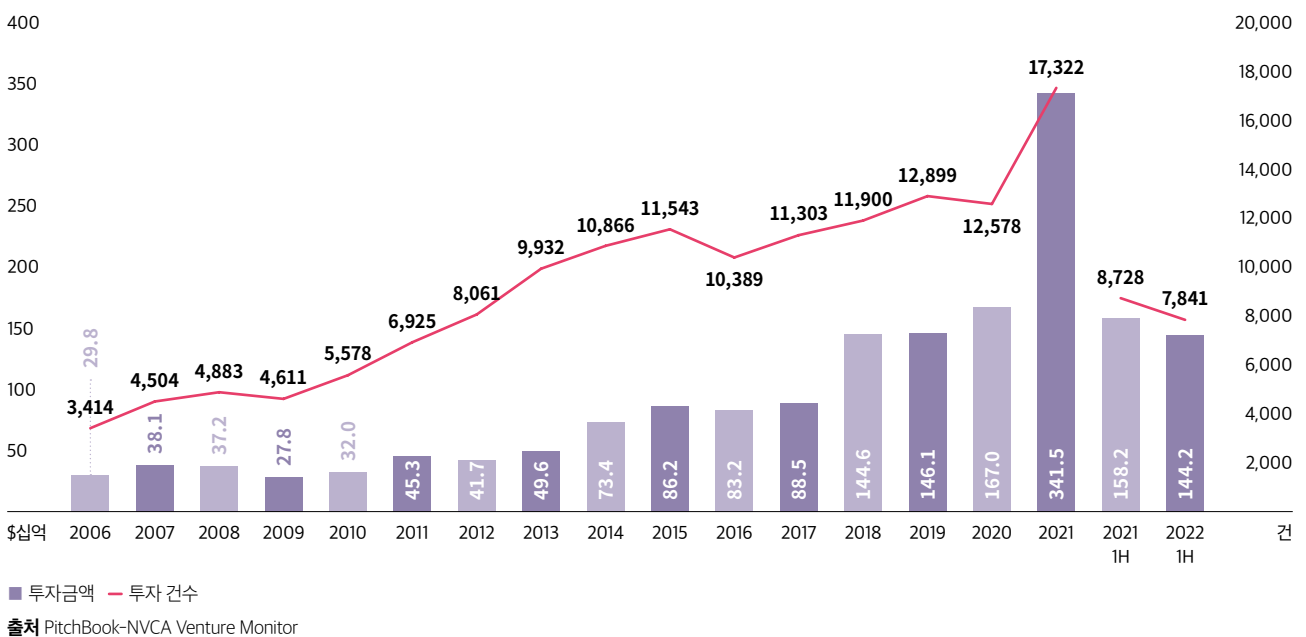
그림 4 — 미국 VC 최초 펀드결성(First-time fundraising) 활동



투자(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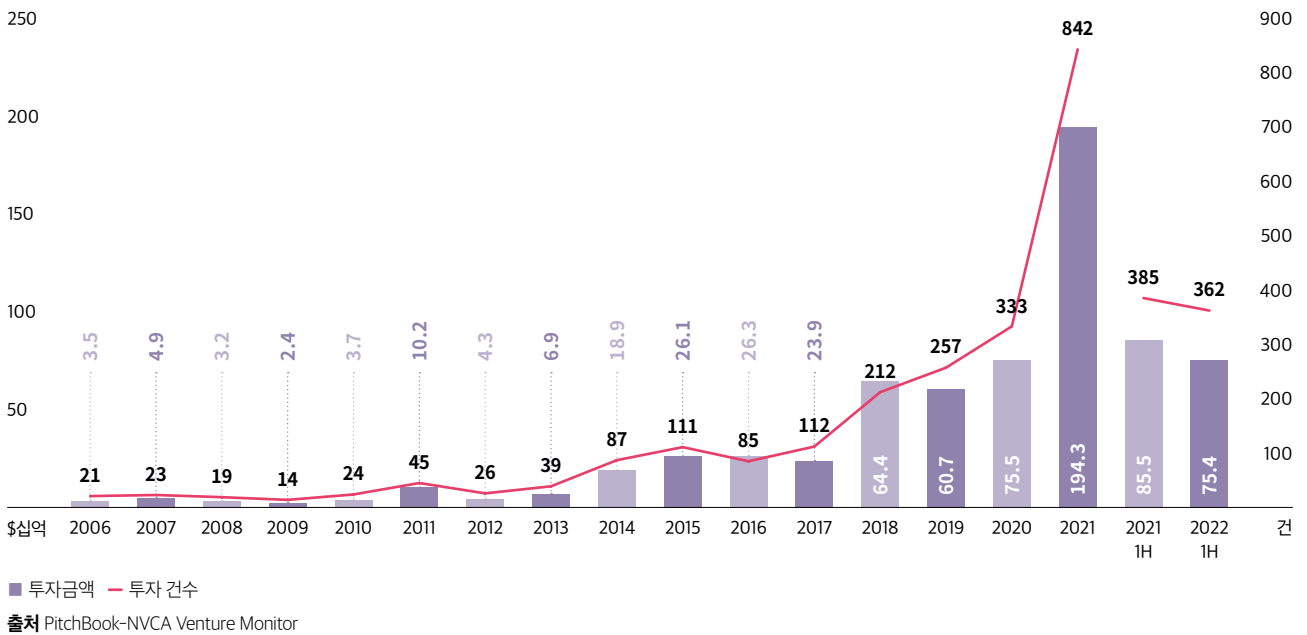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미국 VC의 투자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 조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6개월 동안 1,442억 달러(7,841건)의 투자 활동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1,582억 달러(8,728건)의 투자에 비해 8.9%(10.2%)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2년은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림 5 — 미국 VC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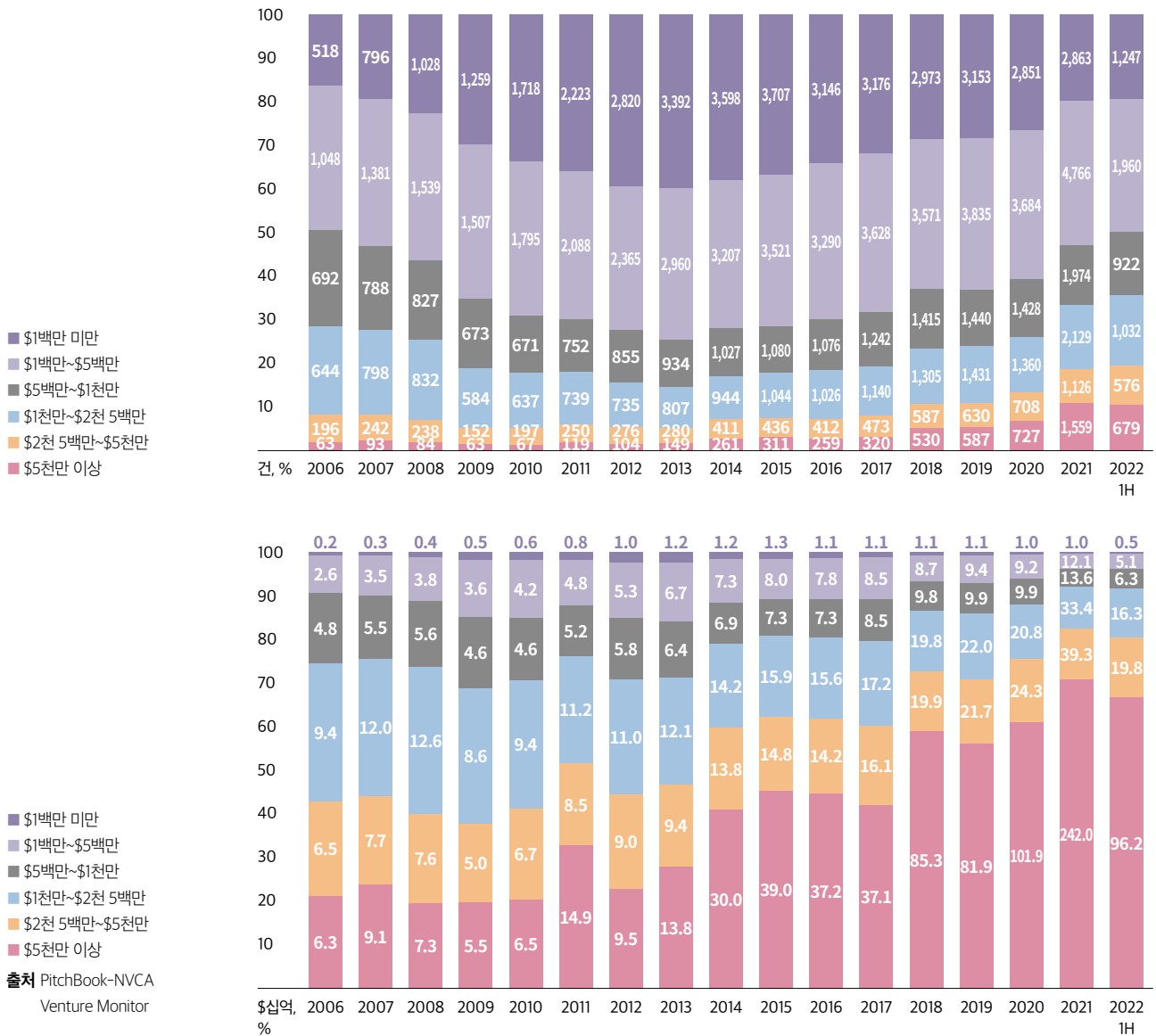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메가-라운드 또한 754억 달러(362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855억 달러(385건)에 비해 11.8%(6.0%)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2020년 전체의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 미국 VC 메가-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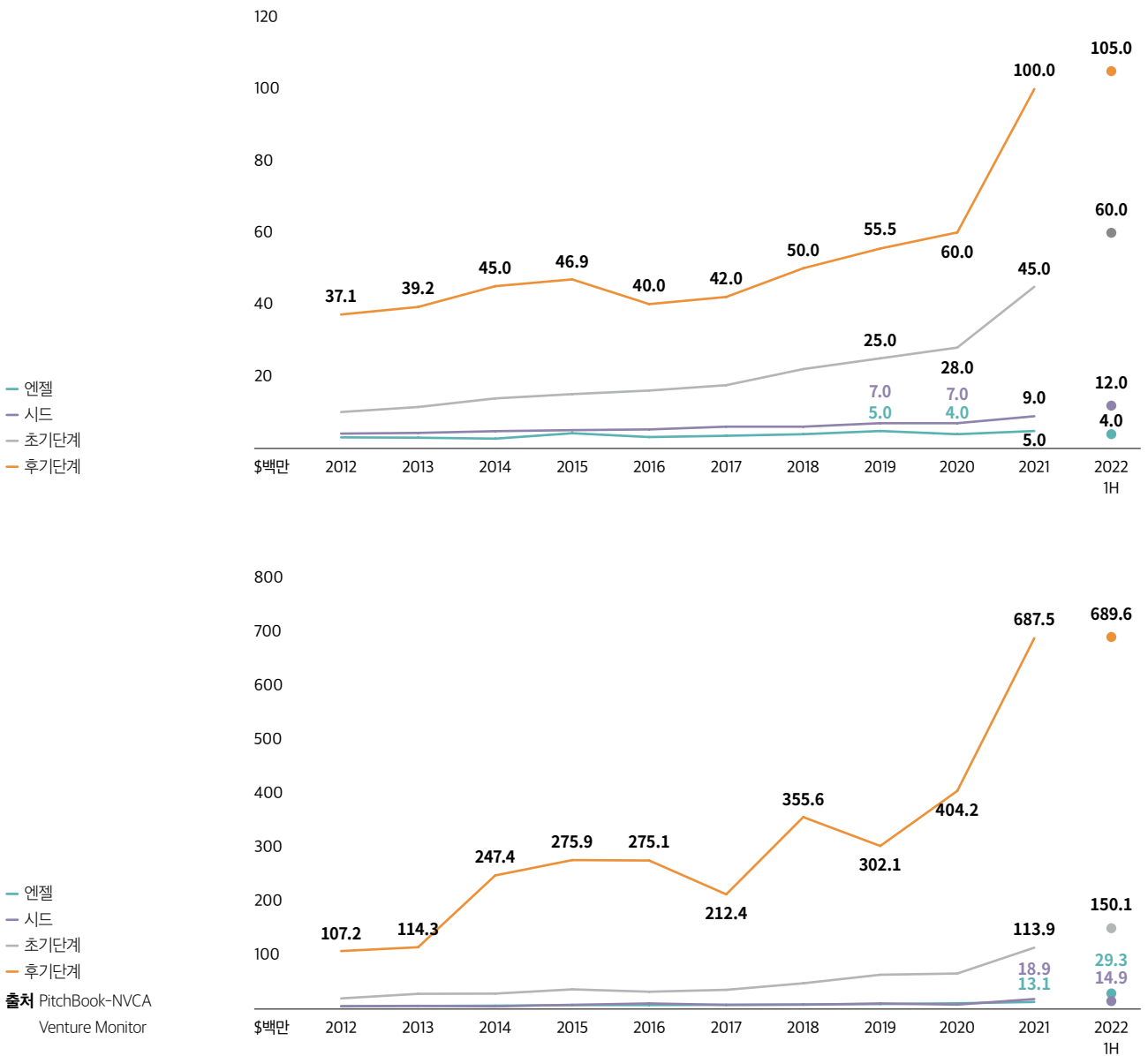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대형 라운드의 투자가 전체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천만 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 10.6%, 금액 합계 기준 66.7%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 미국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미국 VC 단계별로 기업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특징적인 점은 단계별로 나타나는 추세가 다르다는 점이다. 엔젤단계는 중간값이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시드 단계와 초기 단계는 중간값과 평균값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기 단계 역시 중간값과 평균값 모두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2022년에는 작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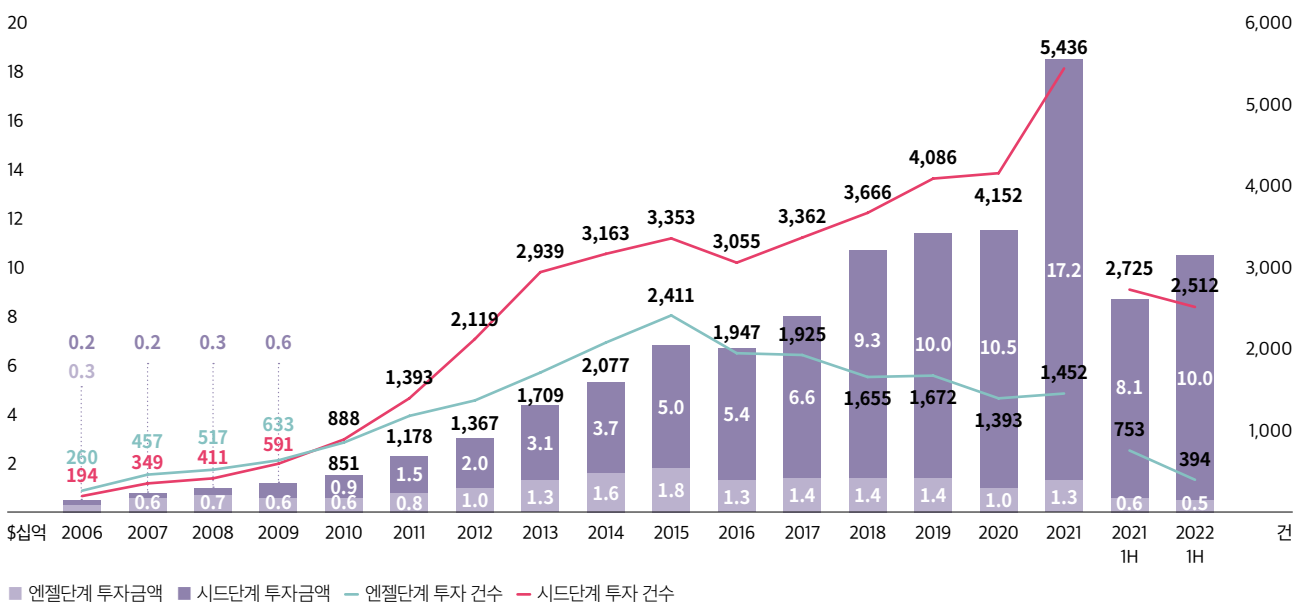
그림 8 – 미국 VC 단계별 기업가치 중간값(상)/평균값(하)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및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투자 업계의 많은 매체에서는 모든 단계의 투자가 둔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엔젤/시드 단계는 전반적인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엔젤 단계에서는 5억 달러(394건), 시드 단계에서는 100억 달러(2,512건)가 투자되었다. 엔젤/시드 단계를 합쳐서 볼 경우,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하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9% 성장하였다. 시드 단계투자의 상대적 강세는 지난 몇 년 동안 결성된 소액펀드(5,000만 달러 미만)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1년에는 449개의 소액펀드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어느 해보다도 100개 이상 많은 숫자이다. 올해 결성된 약 200개의 펀드를 포함하여 2018년부터 1,628개의 소액펀드가 결성되었기에 엔젤/시드 단계의 투자 강세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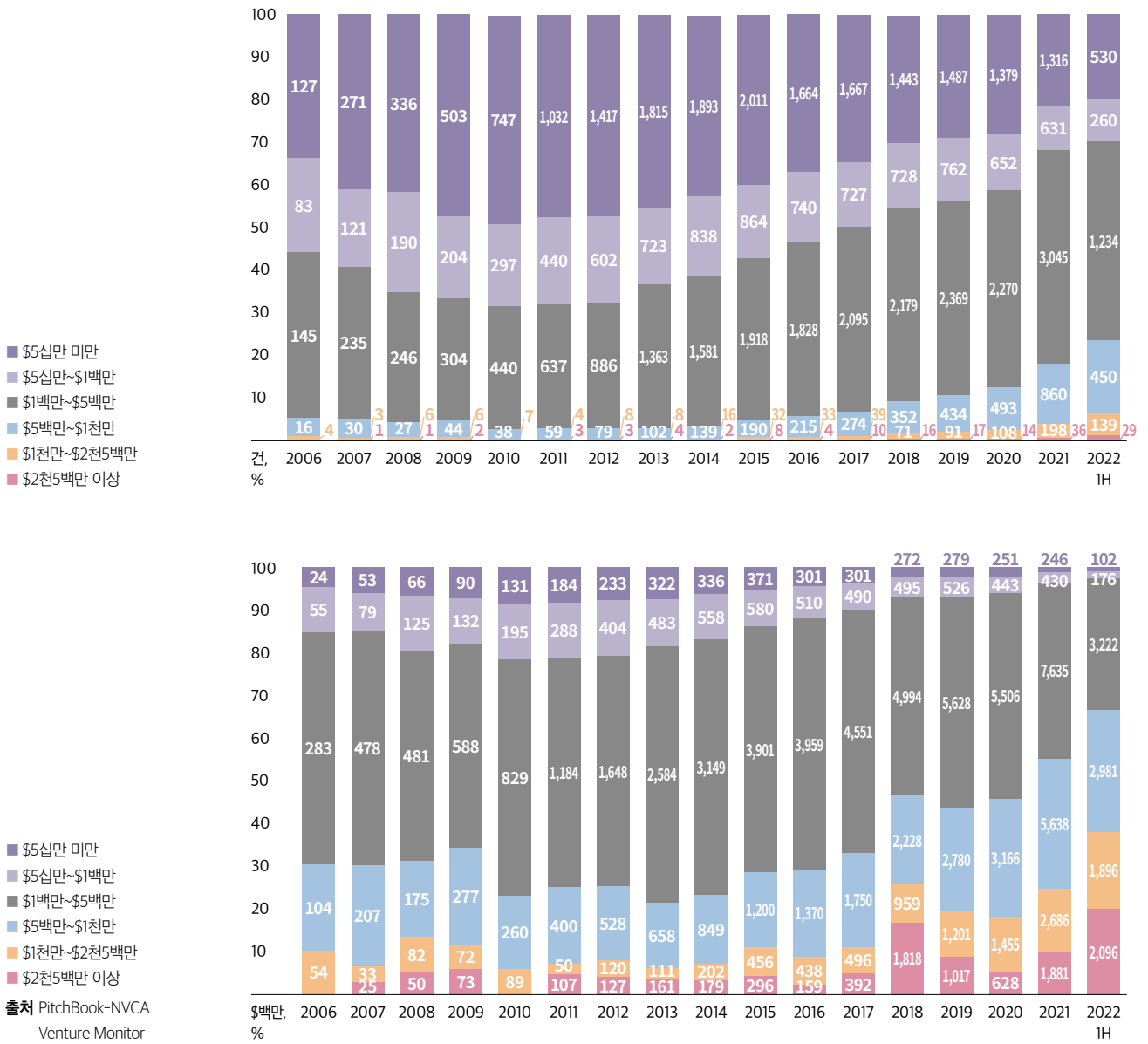
그림 9 -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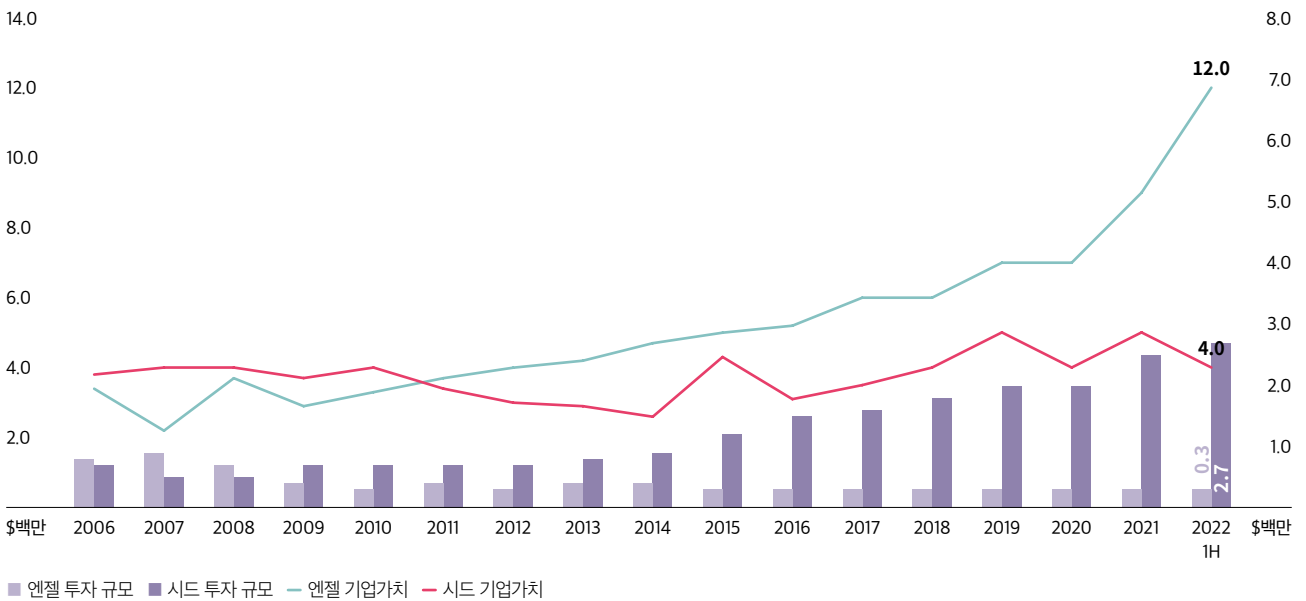
엔젤/시드 단계에서도 투자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엔젤/시드 단계에서 대형 투자라고 볼 수 있는 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상반기에 건수 기준으로 1.1%, 금액 합계 기준으로 20%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50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 1.0%를 기록하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 — 미국 엔젤/시드 단계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시드 단계 투자 규모의 중간값은 지금까지의 기록 중 두 번째로 높은 값인 2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재 유치 시장의 열기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지만, 비전통적 투자자 및 전통적인 VC들의 시드 단계 투자 참여에 따라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증가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후기 단계에서의 투자활동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2분기 시드 단계에 300건 이상의 투자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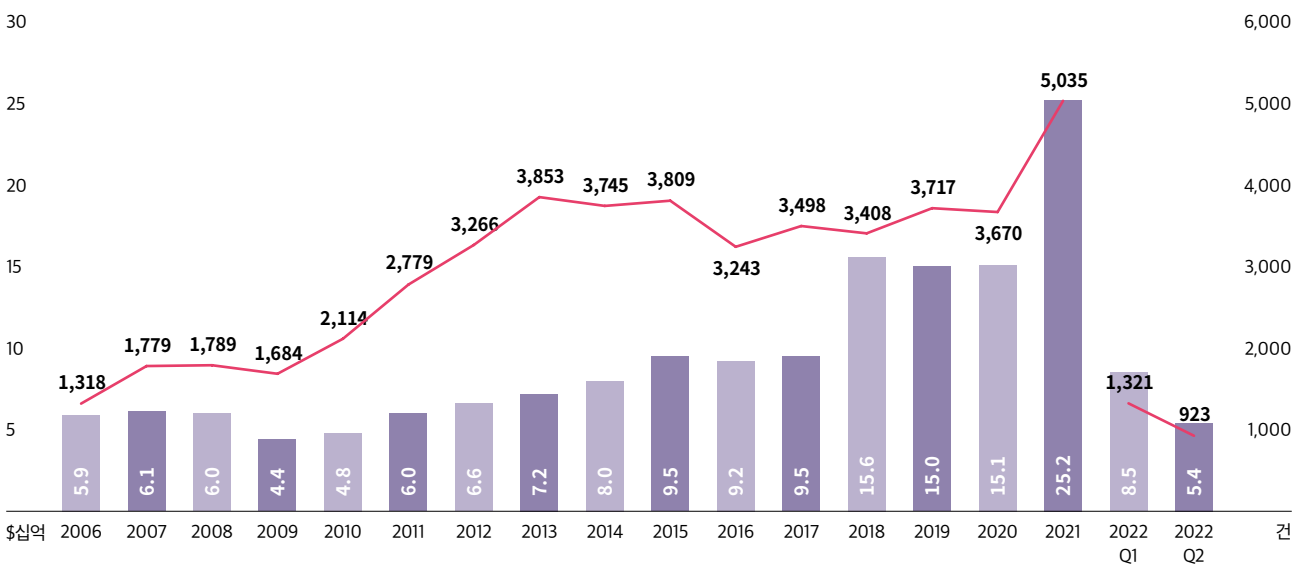
그림 11 — 미국 엔젤/시드 투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 규모(우) 중간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2년 2분기에는 923개의 스타트업이 54억 달러의 최초 투자를 유치하였다. 향후 추가될 데이터를 고려할 때, 7분기 연속으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은 최초 투자 유치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꾸준히 나오며 따라 기존 벤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 — 미국 VC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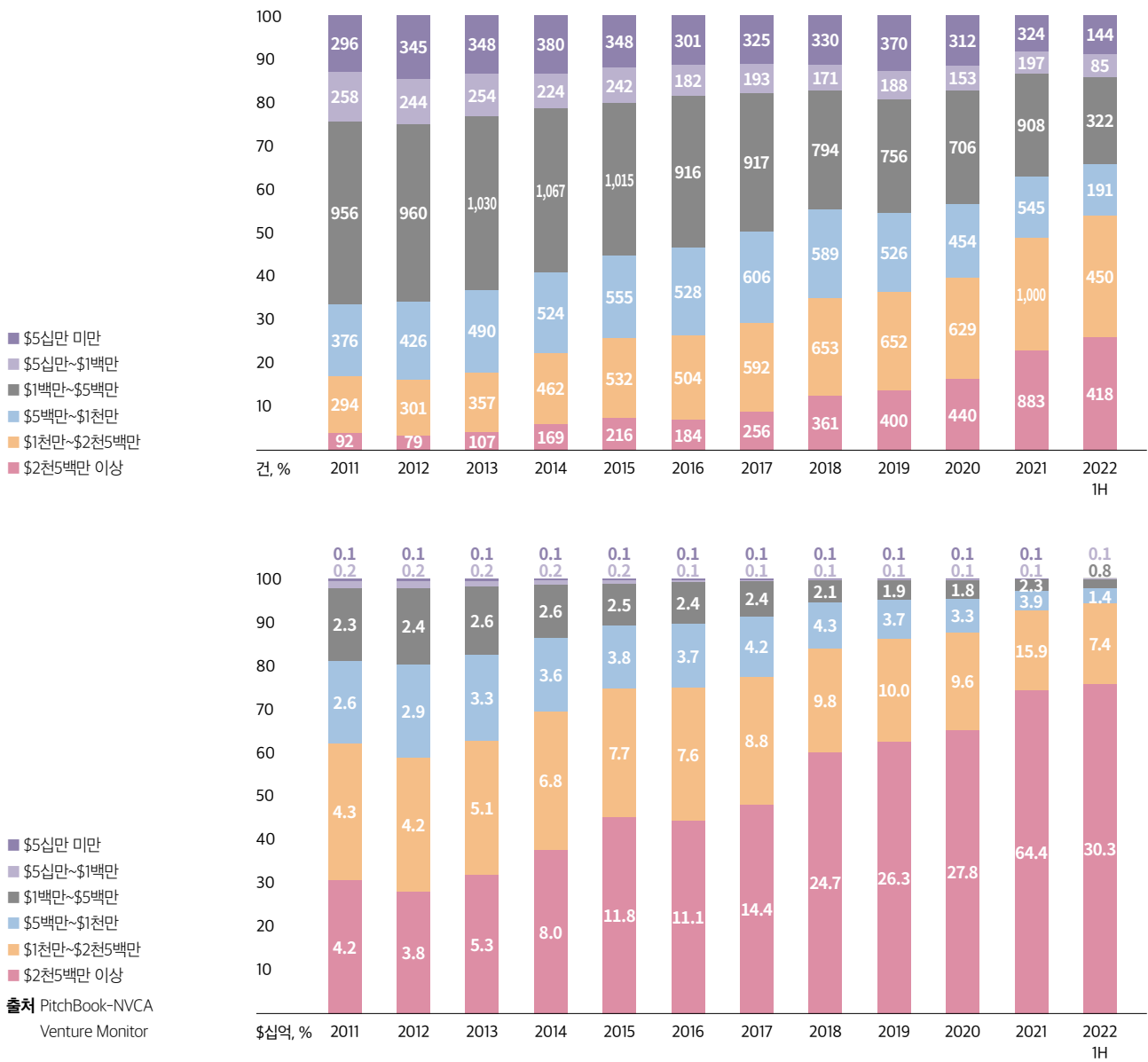
2022년 2분기의 초기 단계 VC 투자는 990건의 거래에서 160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하였다. 이번 분기의 투자금액은 2021년에 기록했던 분기별 투자금액의 최고치('21.Q4: 298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앞서고 있다. 이는 2021년 벤처투자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진정되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 — 미국 초기 VC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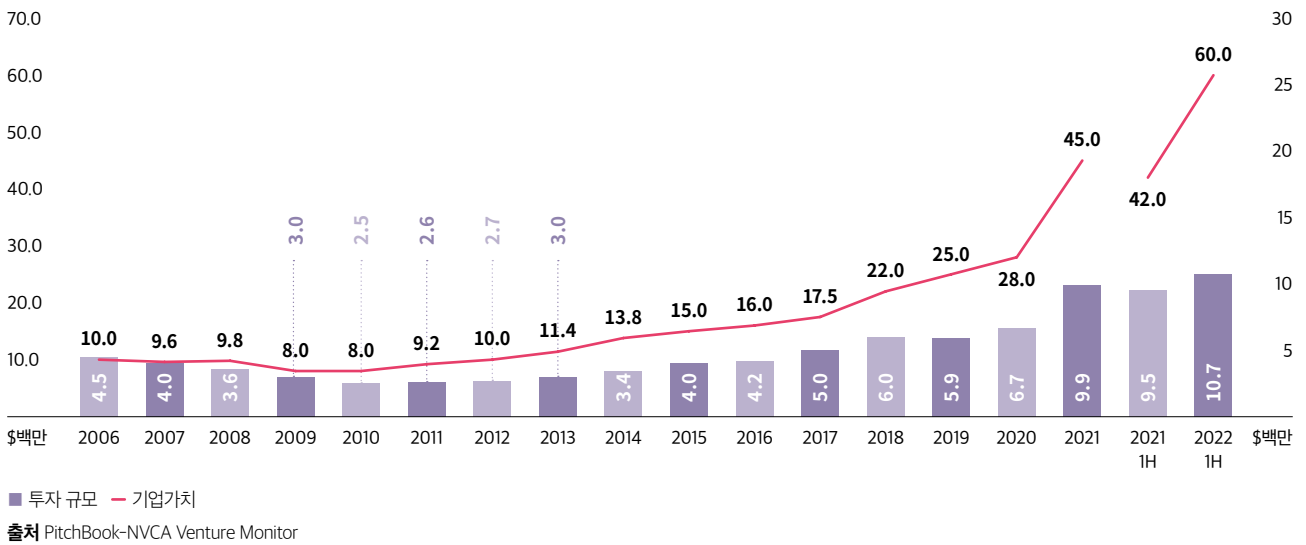
초기 VC 투자에서도 투자의 대형화 추세를 목격할 수 있다. 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건수 기준으로 26.0%, 금액 합계 기준으로 75.8%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4 — 미국 초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초기 단계의 회복력은 미온적인 상장 시장의 회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들로 인한 것이다. 전년도의 성장 추세와 대기업들의 초기 단계 투자 참여로 인해 2022년 상반기 초기 단계 투자 규모의 중간값은 1,07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9% 성장하였다.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2.9% 성장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전년도에 비해 동일한 투자금액으로 더 적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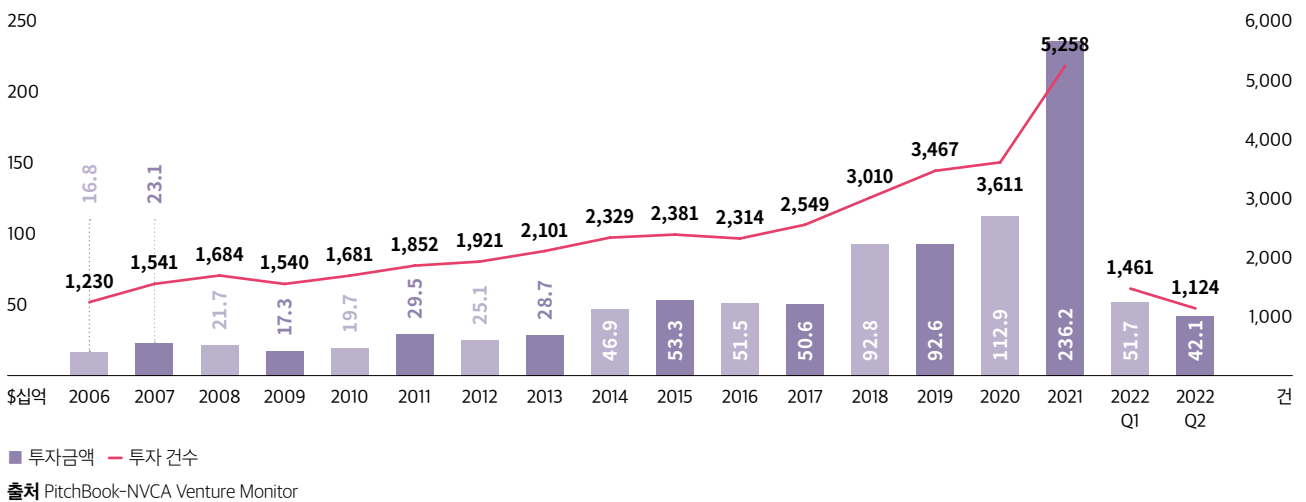
그림 15 — 미국 초기 VC 투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 규모(우) 중간값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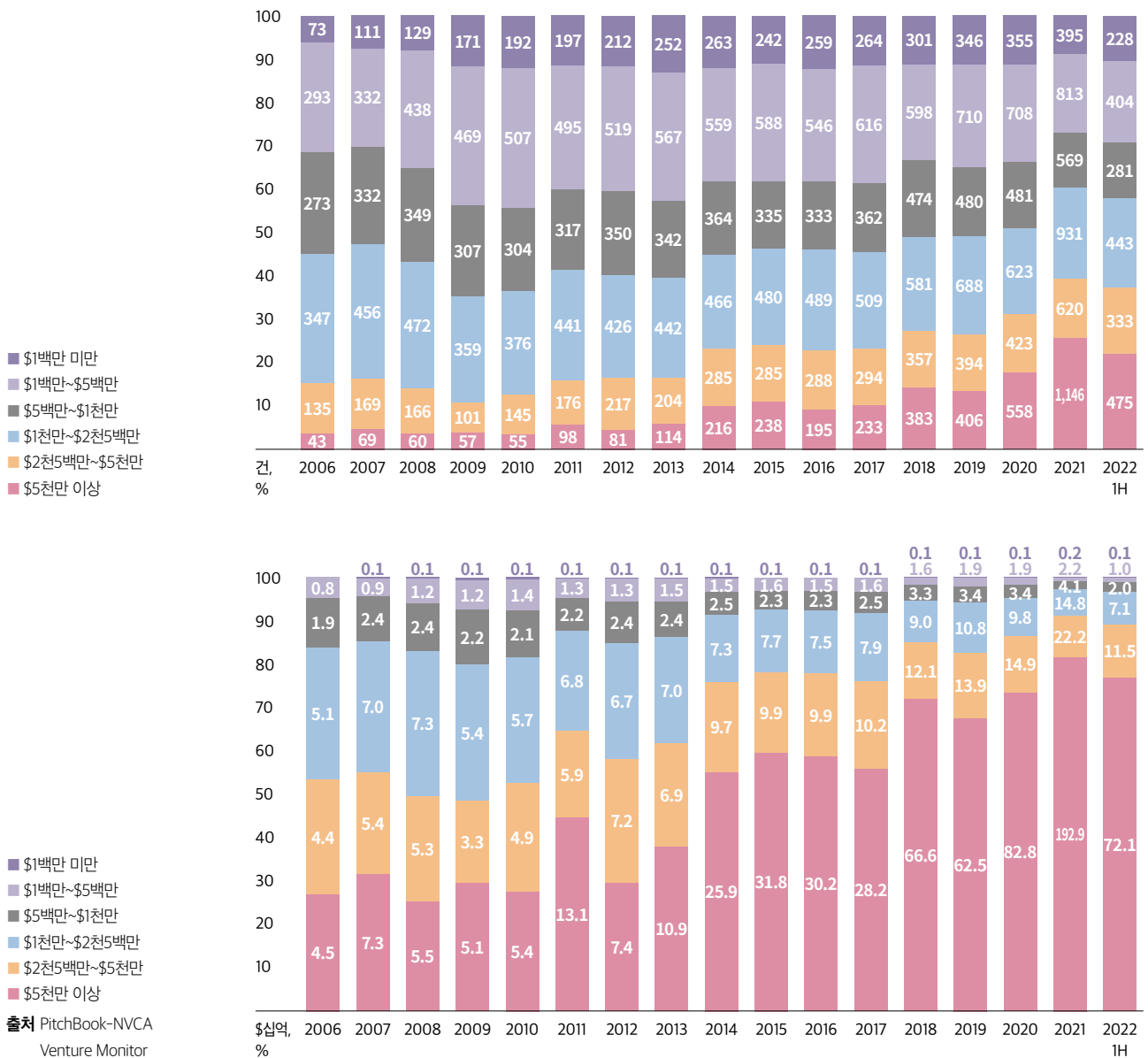
2022년 2분기 후기 VC 투자는 1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록적인 1분기 이후 2분기의 후기 VC 투자 건수는 23.1% 감소하여 1,124건을 기록했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실적이다. 분기별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반영될 데이터를 예측한다면 2022년 2분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후기 VC 투자 거래 건수로 나타날 것이다. 투자 규모와 기업가치의 평균값이 최근 최고치에 비해 크게 하락했지만, 투자 건수는 드라이파우더의 축적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회수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연말까지 추가적인 둔화를 예상해야 한다.

그림 16 —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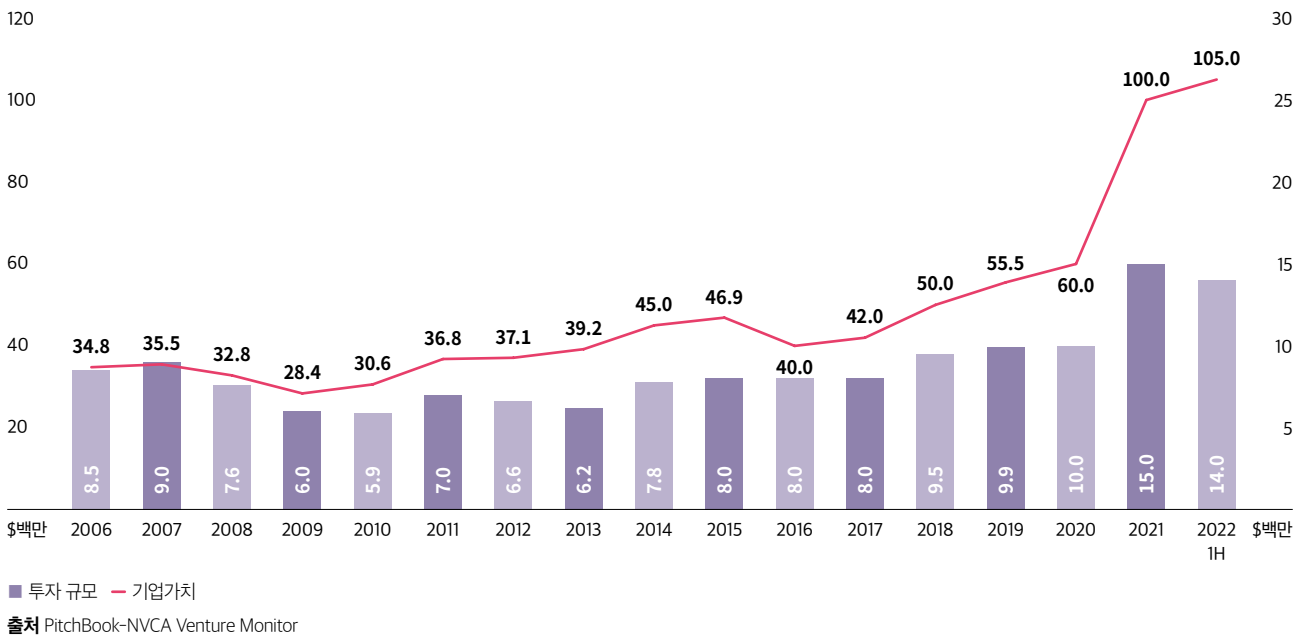
후기 단계에서는 대형화의 추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전체 후기 VC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22.0%, 금액 합계 기준으로 76.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의 25.6%, 81.7%에 비해 각각 3.6%p, 4.8%p 하락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일 뿐, 역사적으로 볼 때 2022년의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림 17 — 미국 후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2022년 상반기 후기 VC 투자 규모의 중간값은 1,400만 달러로, 전년도 1,500만 달러에 비해 하락하였다. 그러나 투자 규모의 중간값은 2020년의 1,000만 달러에 비해 40% 높은 수치이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값이므로, 이러한 하향 조정은 큰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로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2021년 이전 수치보다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 미국 후기 VC 투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 규모(우) 중간값



분야별 투자 현황

2022년 상반기에 B2B 테크 분야에서 785억 달러(3,540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16.8%) 증가한 수치로, 2021년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 또한 각각 600만 달러 및 4,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19 — 미국 VC B2B 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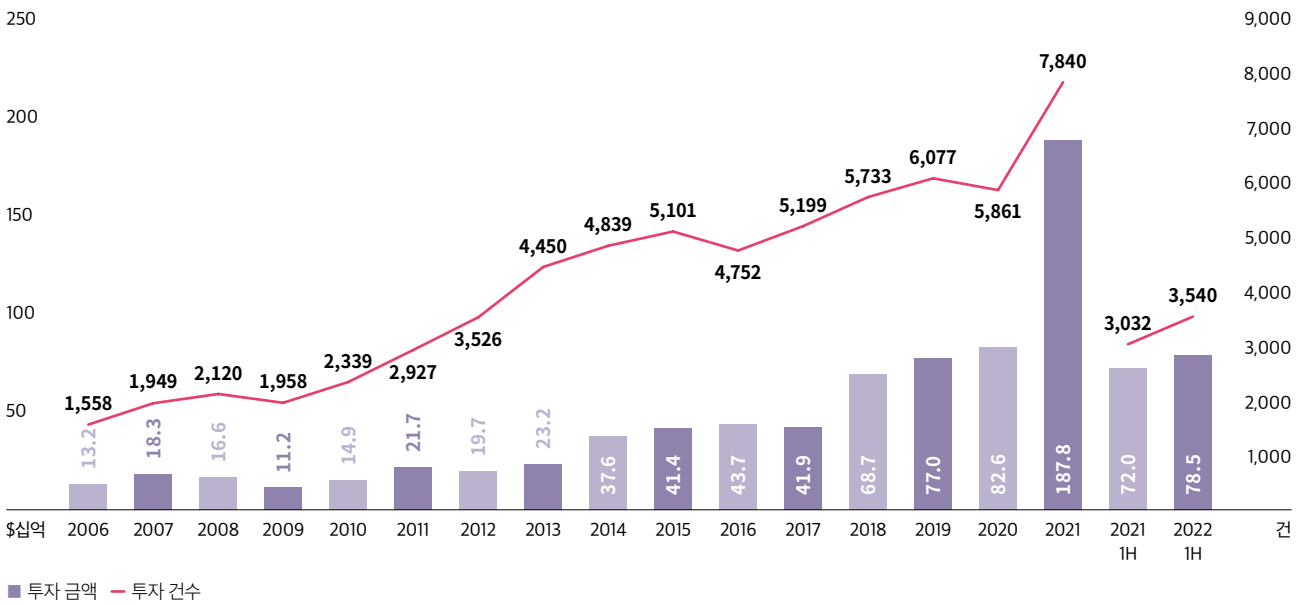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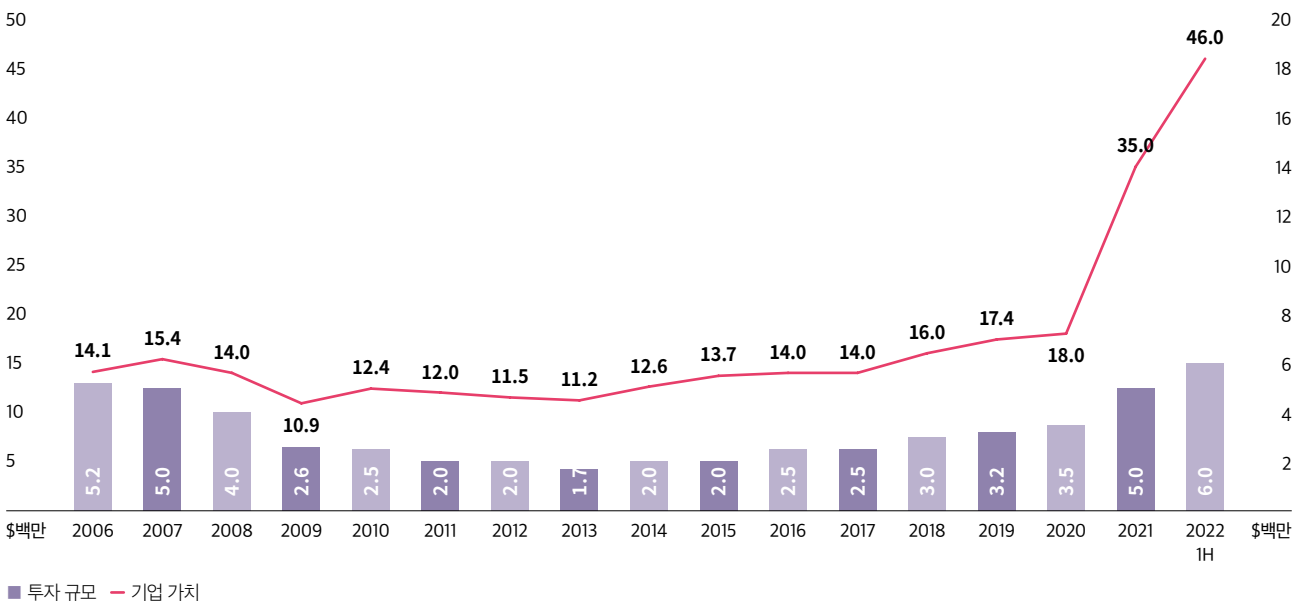


그림 20 — 미국 VC B2B 테크 투자 현황: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2년 상반기에 B2C 테크 분야에서 334억 달러(1912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건수는 3.6% 증가했지만 투자금액은 22.4% 감소하였다. 이는 B2C 테크 분야에서는 후기 단계보다 앞선 단계의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410만 달러 및 3,7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21 — 미국 VC B2C 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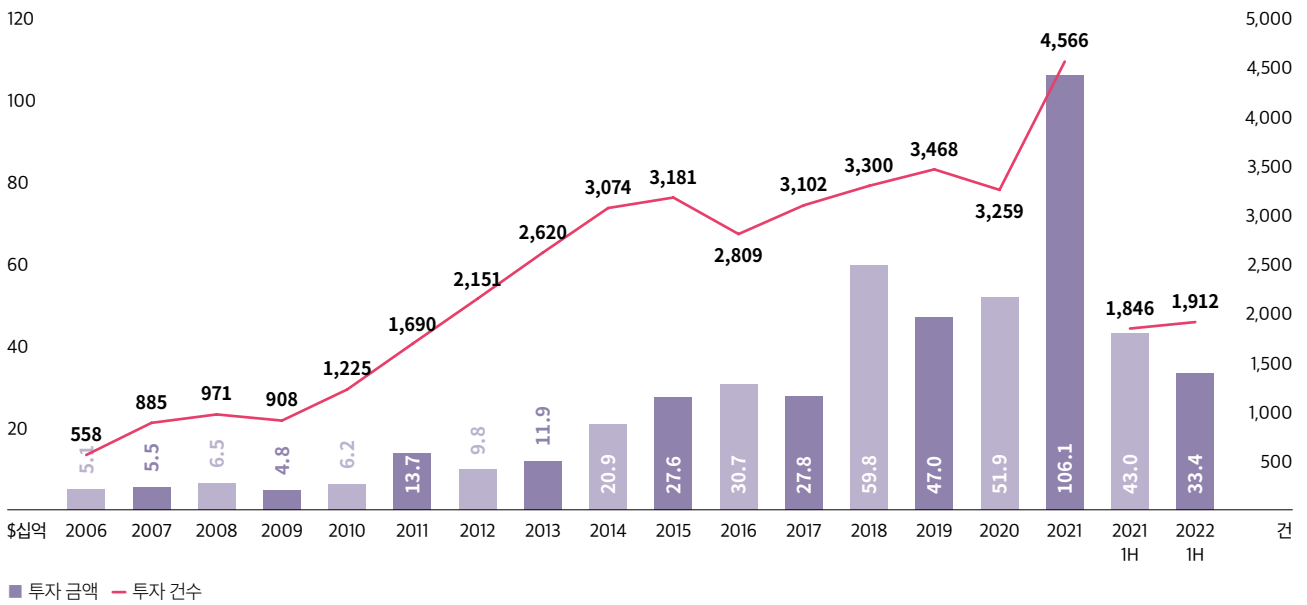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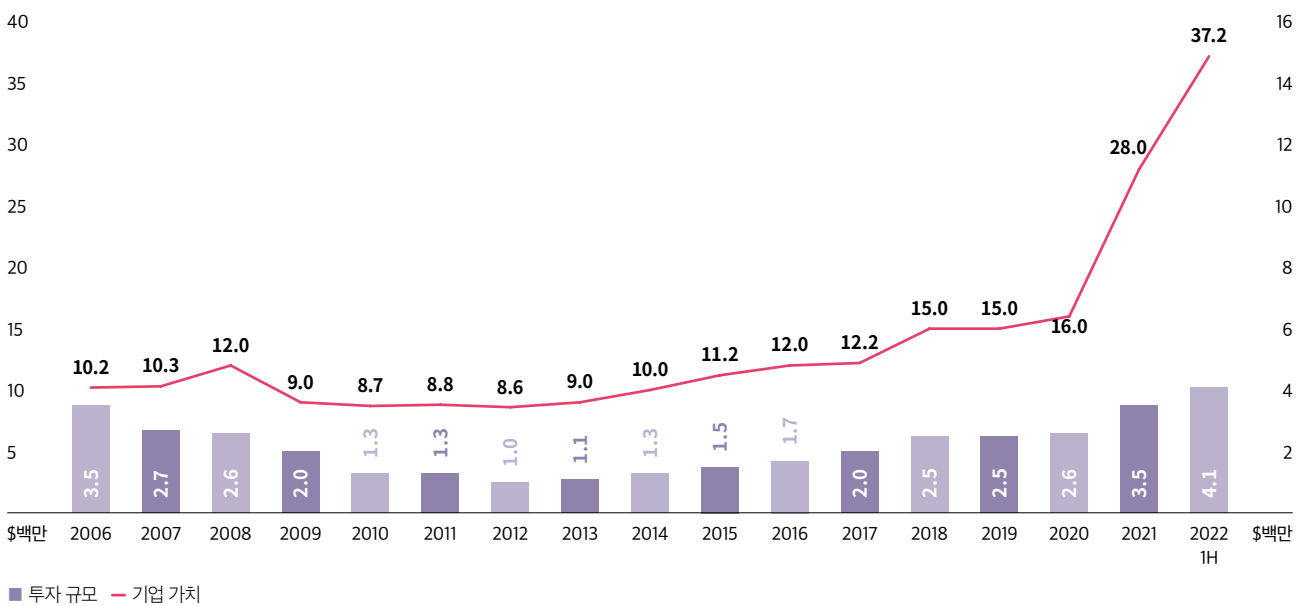


그림 22 — 미국 VC B2C 테크 투자 현황: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2년 상반기에 핀테크 분야에서 240억 달러(993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투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것에 비해,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반기 투자금액 실적만으로도 팬데믹 이전 모든 해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600만 달러 및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23 - 미국 VC 핀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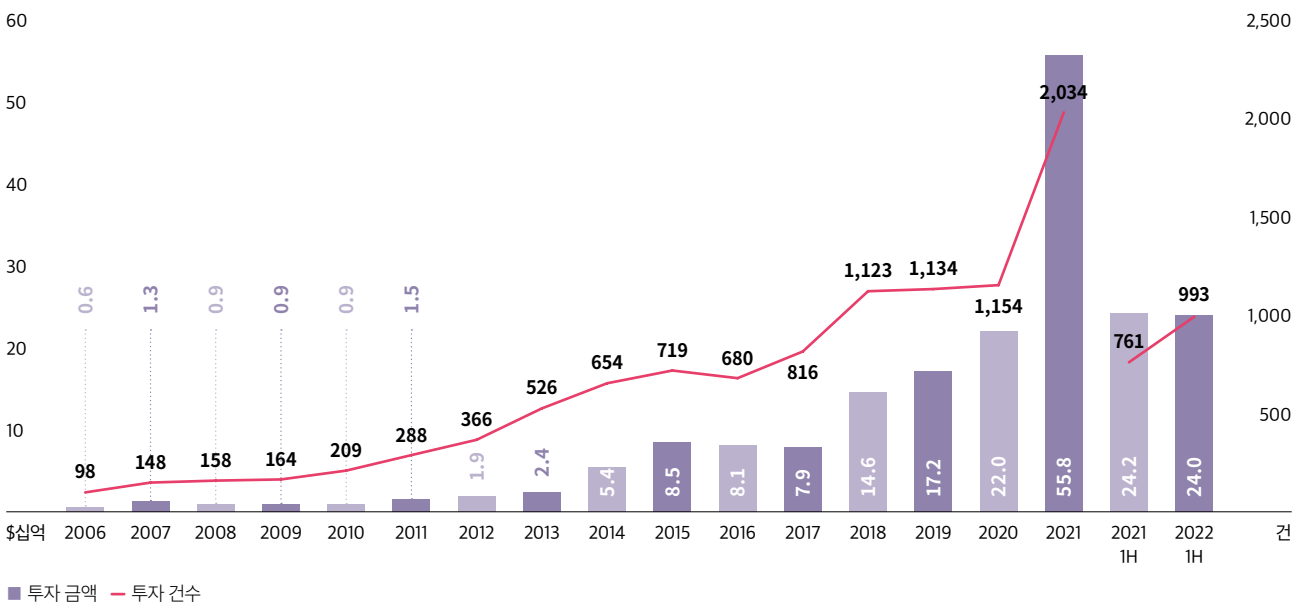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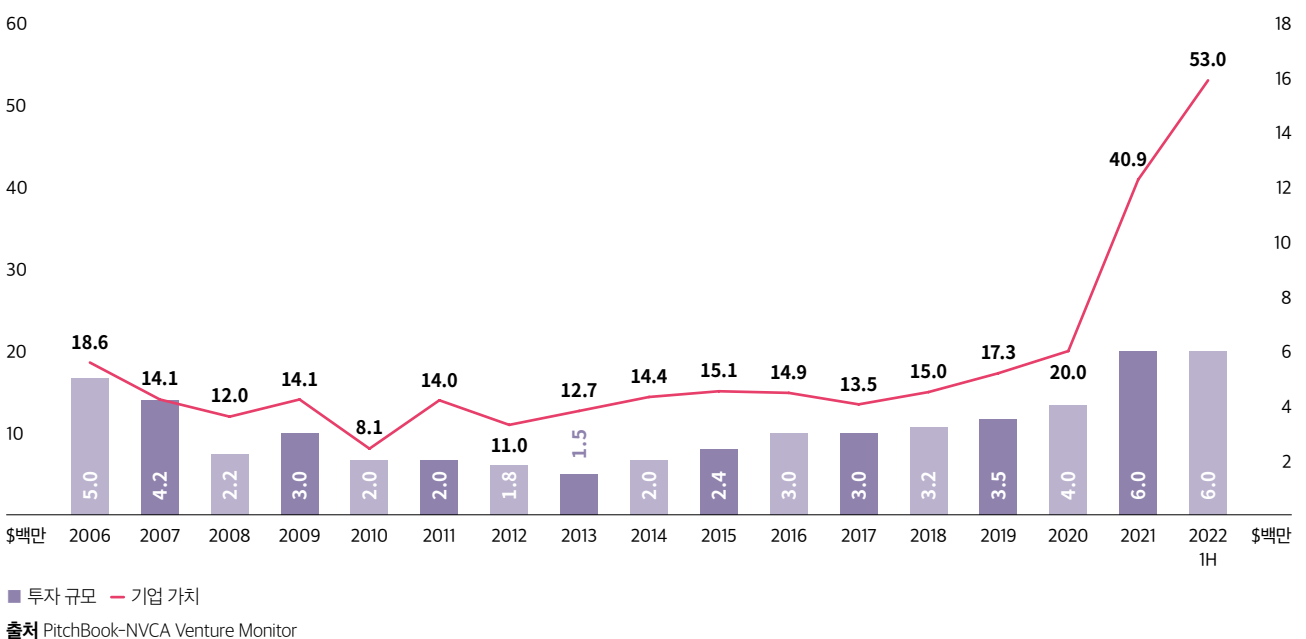


그림 24 - 미국 VC 핀테크 투자 현황: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2년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178억 달러(512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각각 14.1%, 12.5% 하락하였다. 올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투자금액은 전년도에 근접하고 투자 건수는 전년도의 실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1,060만 달러 및 4,9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25 - 미국 VC 제약/바이오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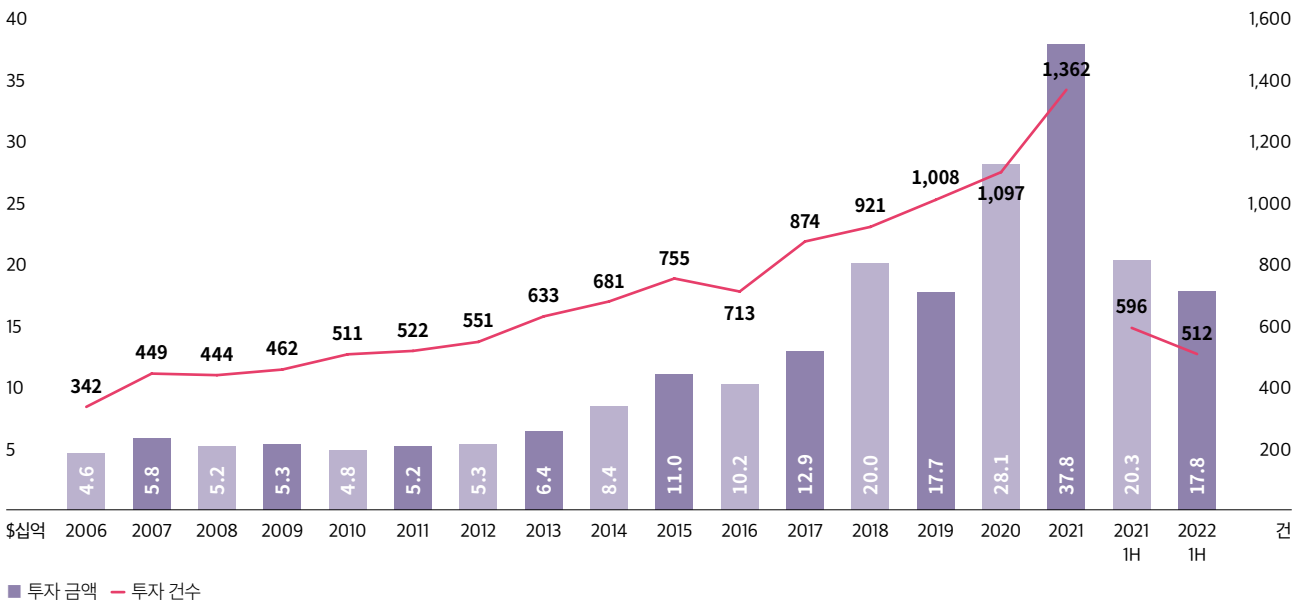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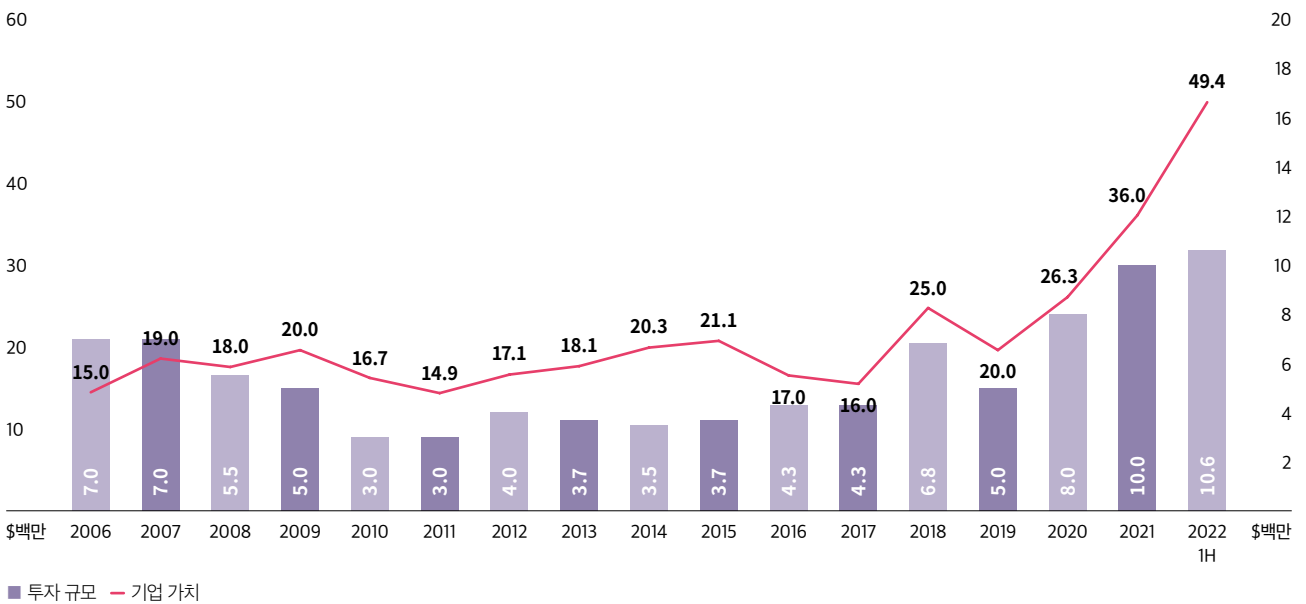


그림 26 - 미국 VC 제약/바이오 투자 현황: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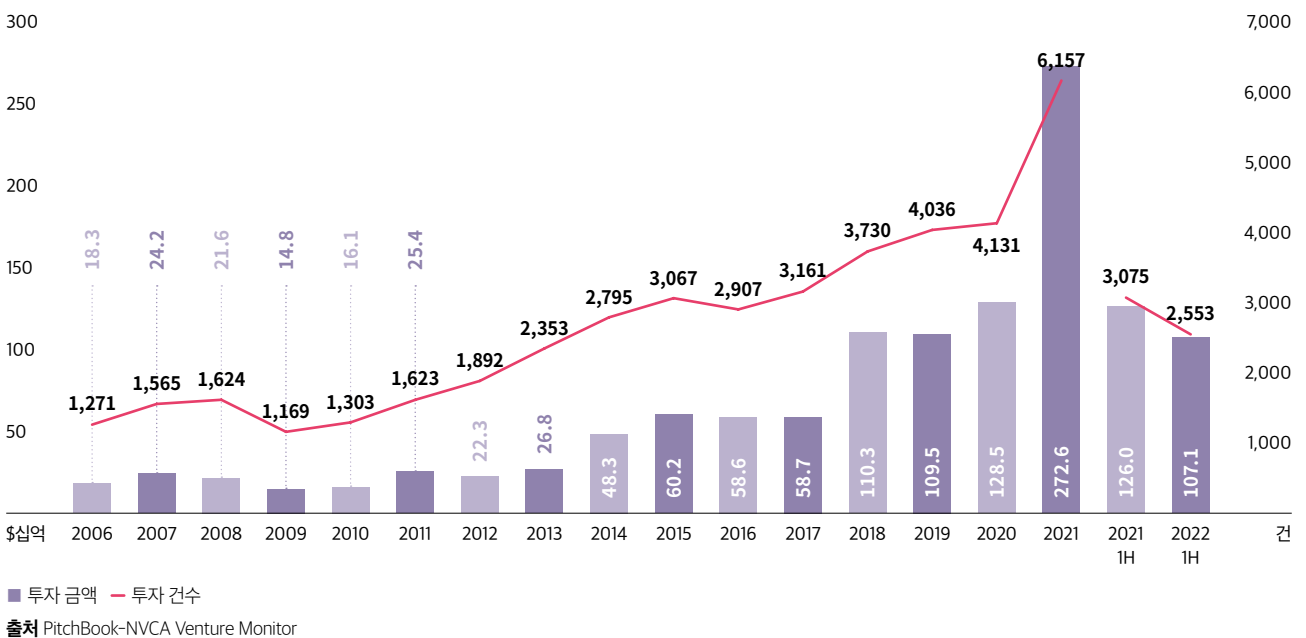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Nontraditional Investors)*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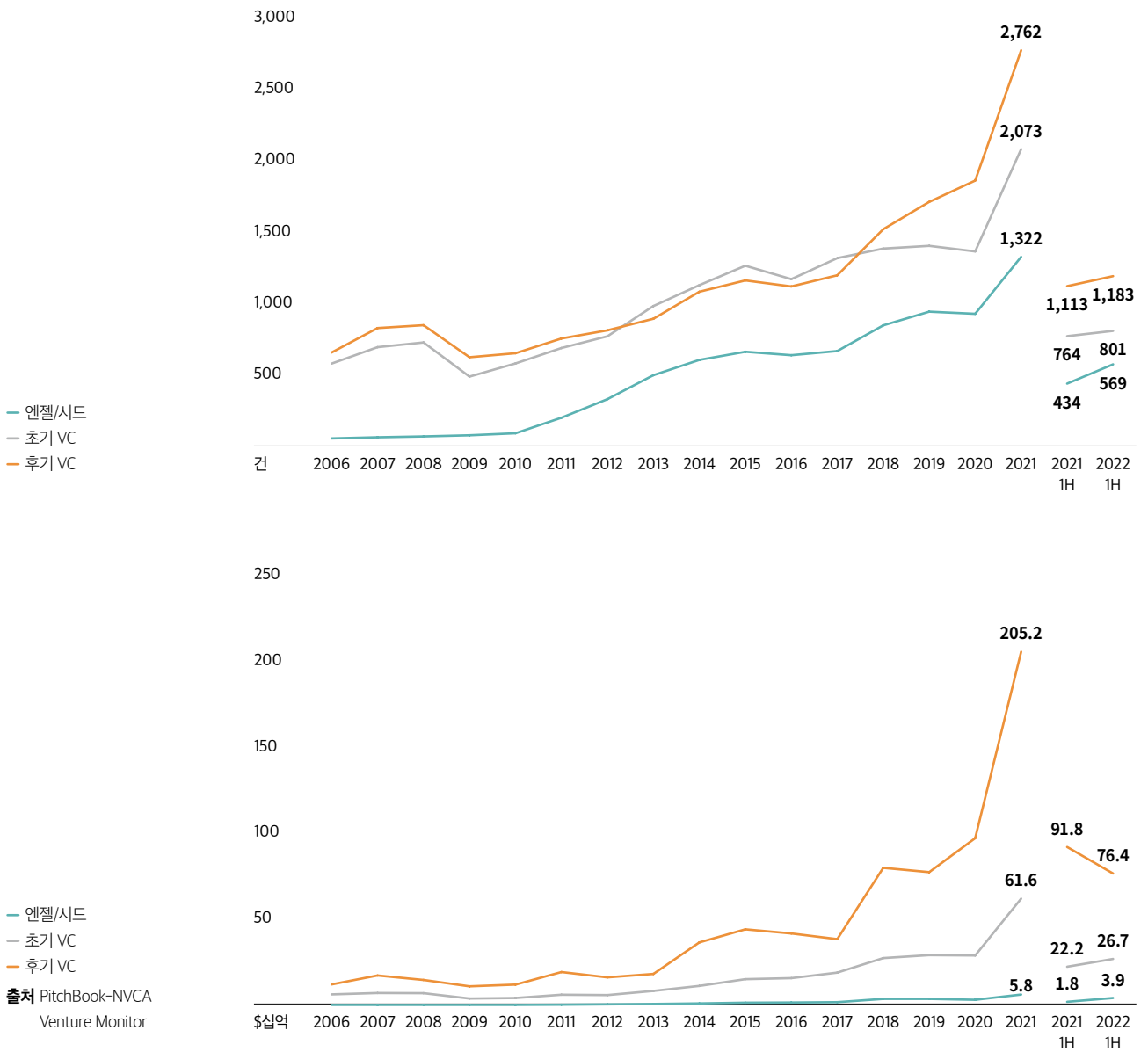
최근 몇 년 동안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업계 전반에 걸쳐 보아온 대로 광범위하게 성장해왔다. 투자 규모와 기업가치의 성장에서부터 수많은 메가-펀드의 결성과 유니콘 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은 VC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는 1,071억 달러(2,553건)의 투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260억 달러(3,075건) 투자 대비 17%(15%) 하락한 실적을 나타냈다. 그동안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주를 이뤘던 메가-라운드는 주식 시장을 괴롭히는 변동성으로 인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면서 훨씬 더 느린 속도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림 27 —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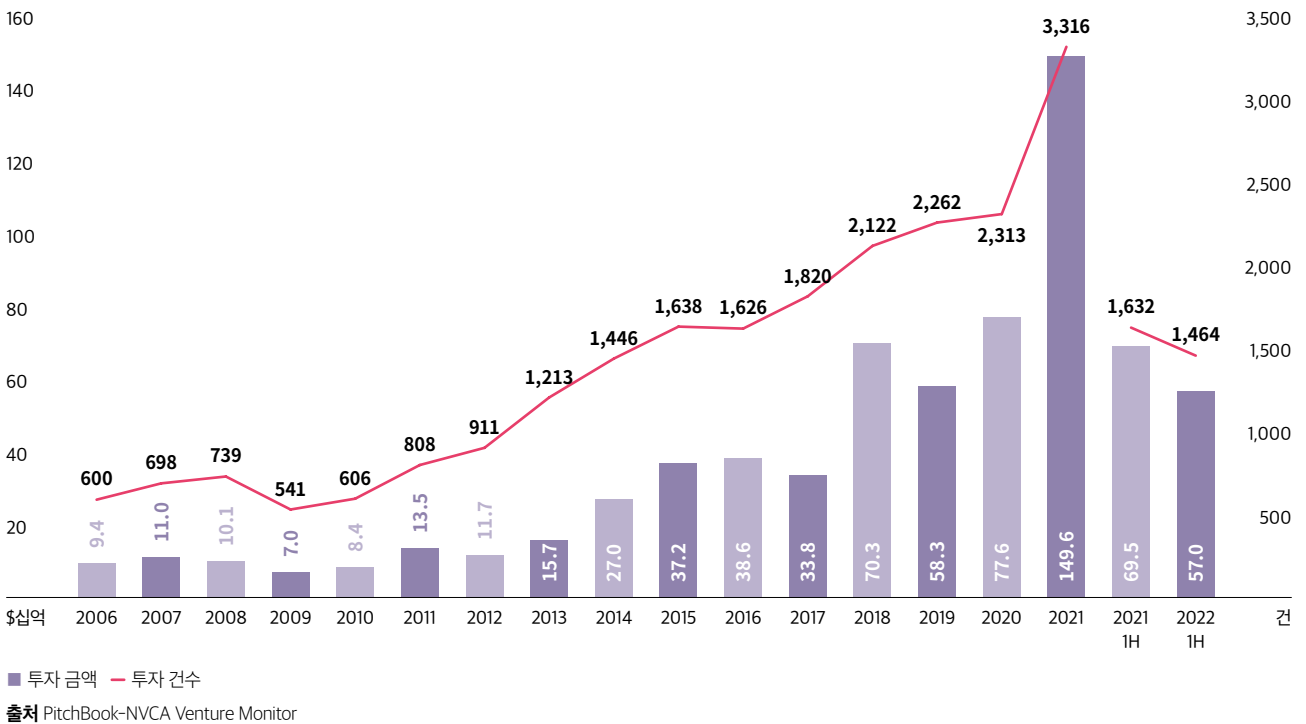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한 것은 특히 이들이 후기 단계에 대한 투자를 줄임에 따라 발생한 것이 크다. 2022년 상반기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할 때, 엔젤/시드 및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이 증가했으나, 후기 단계에서는 투자 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8 — 미국 VC 투자 단계별 비전통적 투자자의 투자 현황: 건수(상) 금액(하) 기준



2022년 상반기 주요 비전통적 투자자 중 하나인 CVC 투자자들 거래 참여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들은 상반기에 570억 달러(1,464건)의 거래에 참여하는 것에 그쳐 전년 동기 695억 달러(1,632건)의 거래에 참여한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림 29 —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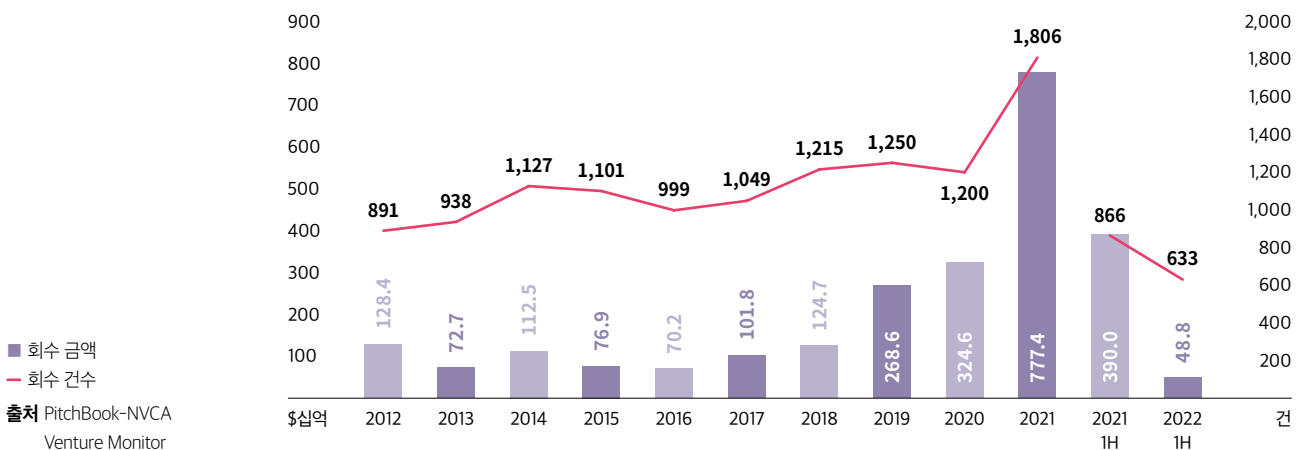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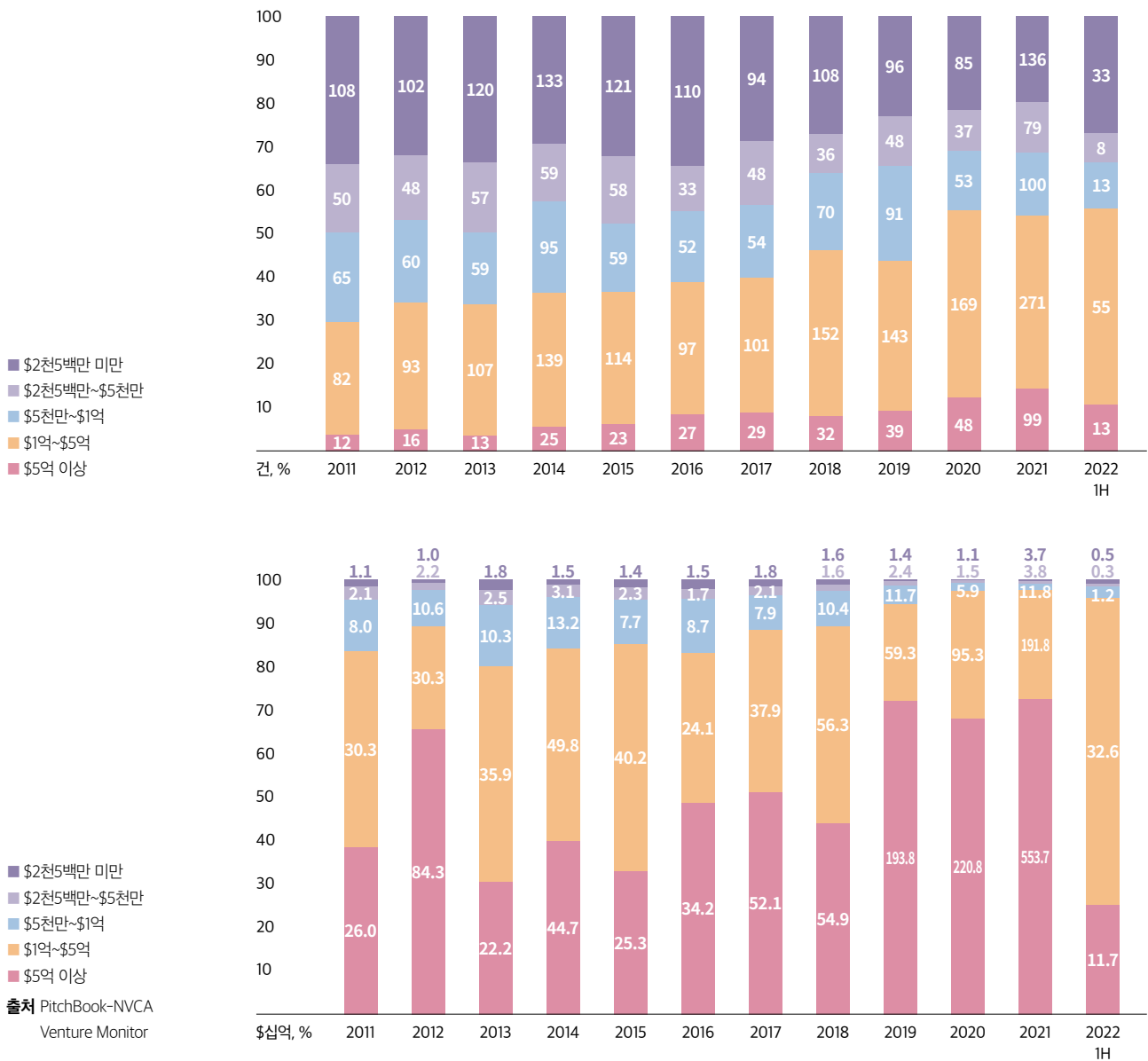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미국의 회수시장은 급격하게 기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488억 달러(633건)를 회수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3,900억 달러(866건)에 비해 87.5%(26.9%)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과 2018년 수준의 실적에 근사한 것으로,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조차도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림 30 — 미국 VC 회수 현황



상반기 회수실적 중 규모에 따른 특징으로는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10.7%, 금액 기준으로는 2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3.8%p, 47.2%p 하락한 수치이다. 그 주요 원인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수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인 IPO를 통한 회수 실적 감소로 볼 수 있다. 고평가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함에 따라 IPO의 창구가 매우 빠르게 닫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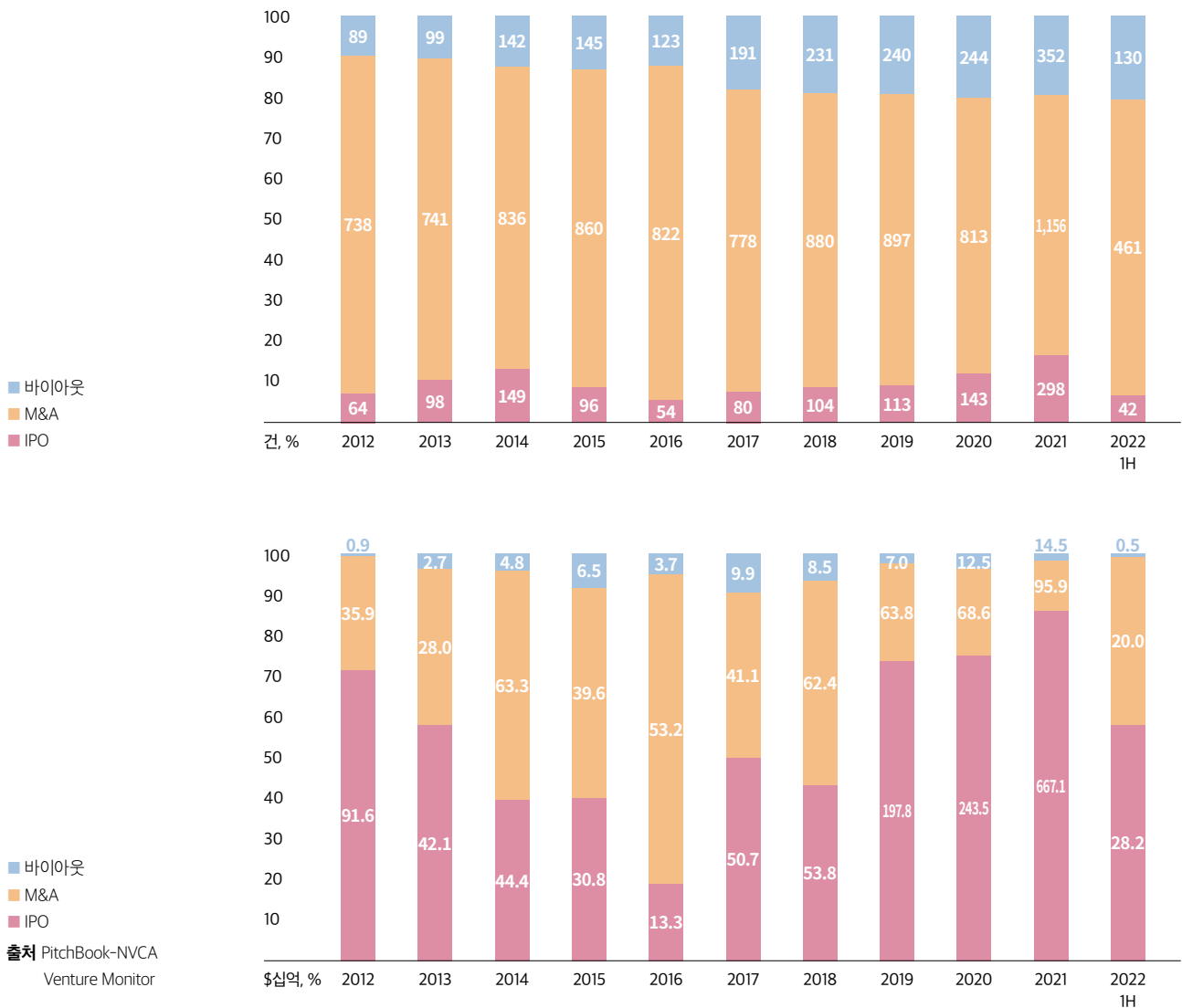
그림 31 — 미국 VC 회수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실제로 2022년 상반기 회수실적 중 IPO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6.6%, 금액 기준으로는 57.9%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9.9%p, 27.9%p 하락한 수치이다. SPAC(특수목적인수회사)를 통한 상장도 SPAC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가 계속 악화되어 부진했다. 심지어는 SPAC 합병이 발표된 건들 중 상당수는 가치평가의 재산정으로 인해 취소되기도 하였다.

인수합병은 꾸준히 회수 건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9~2021년 수준의 기업가치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벤처투자자들에게는 기업가치의 하락이 새로운 인수합병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 수준에 비해 기업가치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스타트업과 기존 투자자들이 언제 새로운 밸류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또한, 마지막으로 평가된 기업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회수 예상액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32 - 미국 VC 회수 유형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02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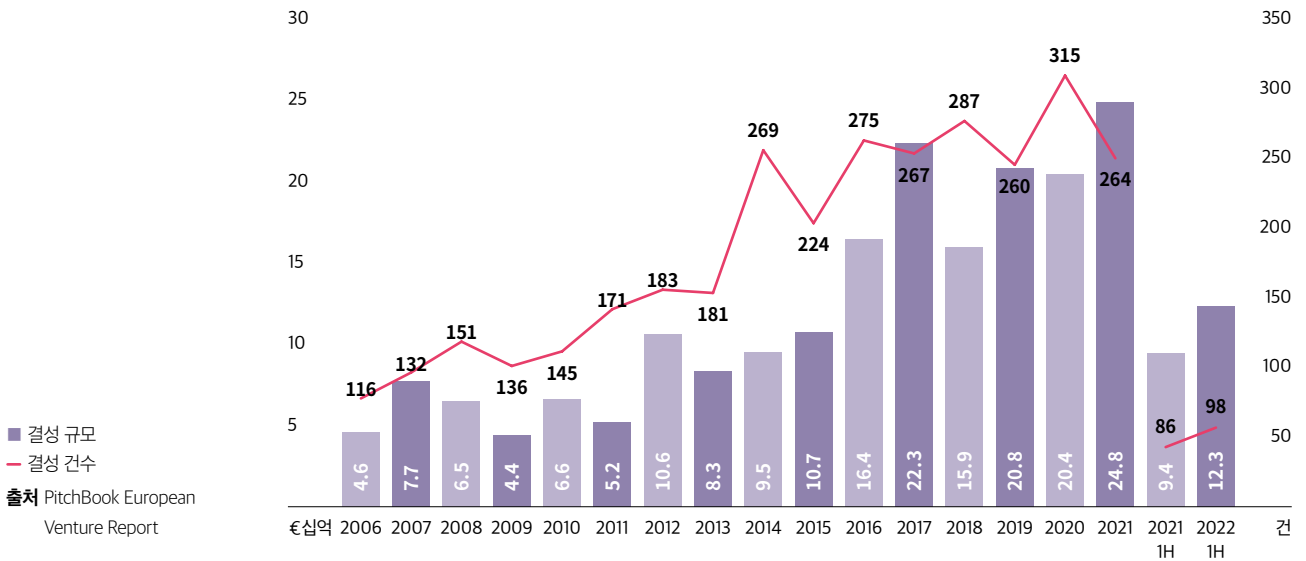
(European Venture Report, 2022년 2분기)

결성(Fundraising)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상반기 유럽에서는 98개 펀드가 총 123억 유로 규모로 결성되어 전년 동기 대비 결성 규모 30.5%, 결성 건수 14.0% 증가하였다. 결성 규모의 추세는 전년도와 비슷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년도의 결성 규모인 248억 유로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 그러나 결성 건수의 성장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하반기에도 지금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2년은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의 펀드가 결성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펀드 결성 규모의 증가와 결성 건수의 감소로 개별 펀드 규모의 대형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데이터로도 나타나는데, 2022년 상반기 펀드 규모의 평균값은 1억 3,783만 유로, 중간값은 8,45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21.8%, 17.2% 증가한 수치로, 2020년에 비해 크게 성장했던 2021년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펀드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 유럽 VC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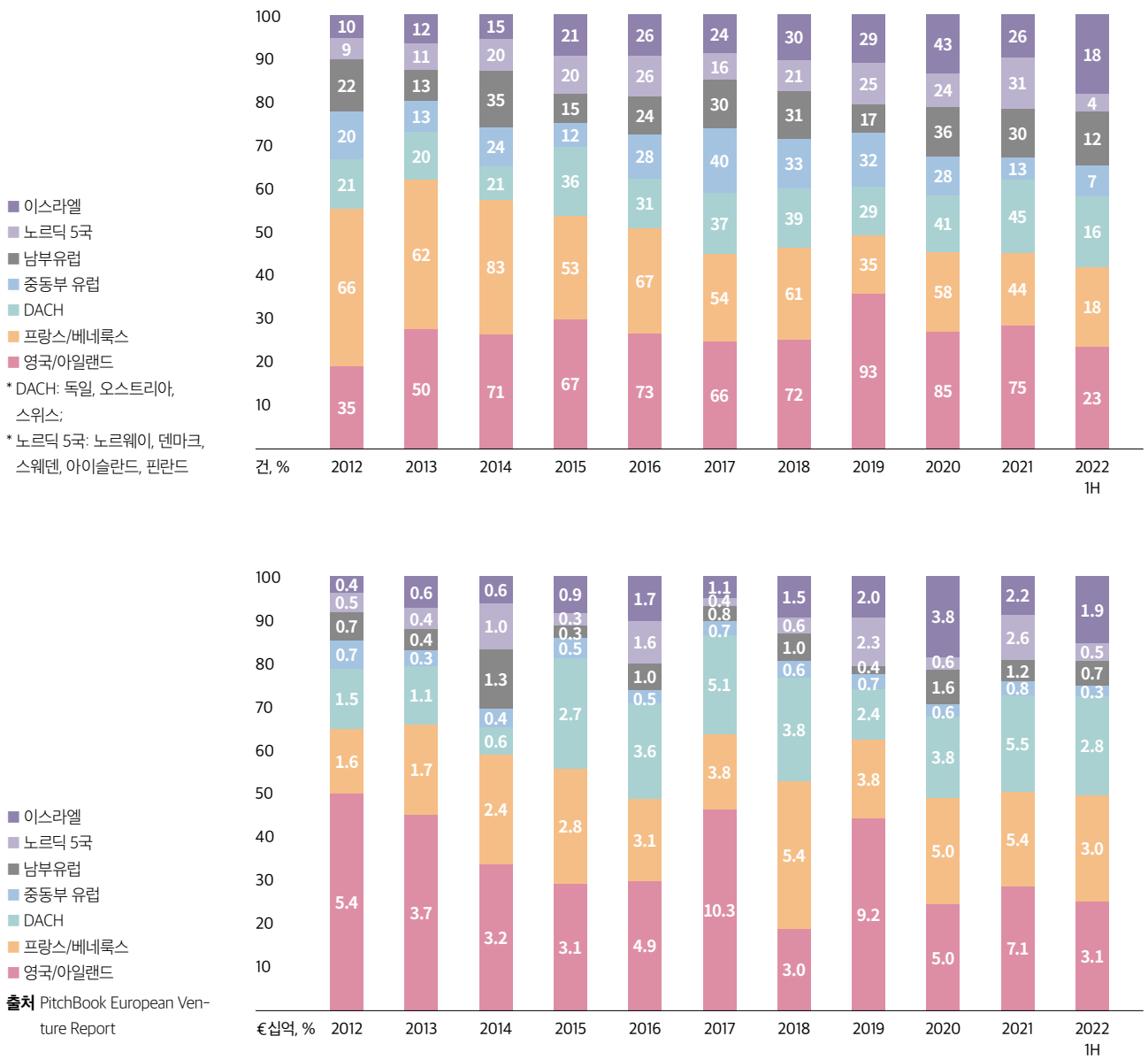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2022년 2분기 유럽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결성된 펀드 중 하나는 5억 6,200만 유로 규모로 결성된 Felix Capital의 네 번째 펀드이다. 이는 당초 목표인 5억 달러(4억 9,460만 유로)를 초과하여 결성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상반기 펀드결성은 유럽 전역의 주요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영국/아일랜드 지역에서는 31억 유로, 프랑스/베네룩스지역에서는 30억 유로, DACH(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에서는 28억 유로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었다.

독일에서는 Project A Ventures IV 펀드가 3억 5,280만 유로, Earlybird Digital West Fund VII 펀드가 3억 5,000만 유로 펀드로 결성된 것이 올 2분기에 결성된 최대 규모 펀드들이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Alven Capital Partners는 여섯 번째 펀드를 3억 5,000만 유로 규모로 결성함으로써 프랑스에서 가장 큰 초기 단계 펀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 3 — 유럽 지역별 VC 펀드 결성 현황: (상) 건수 기준 (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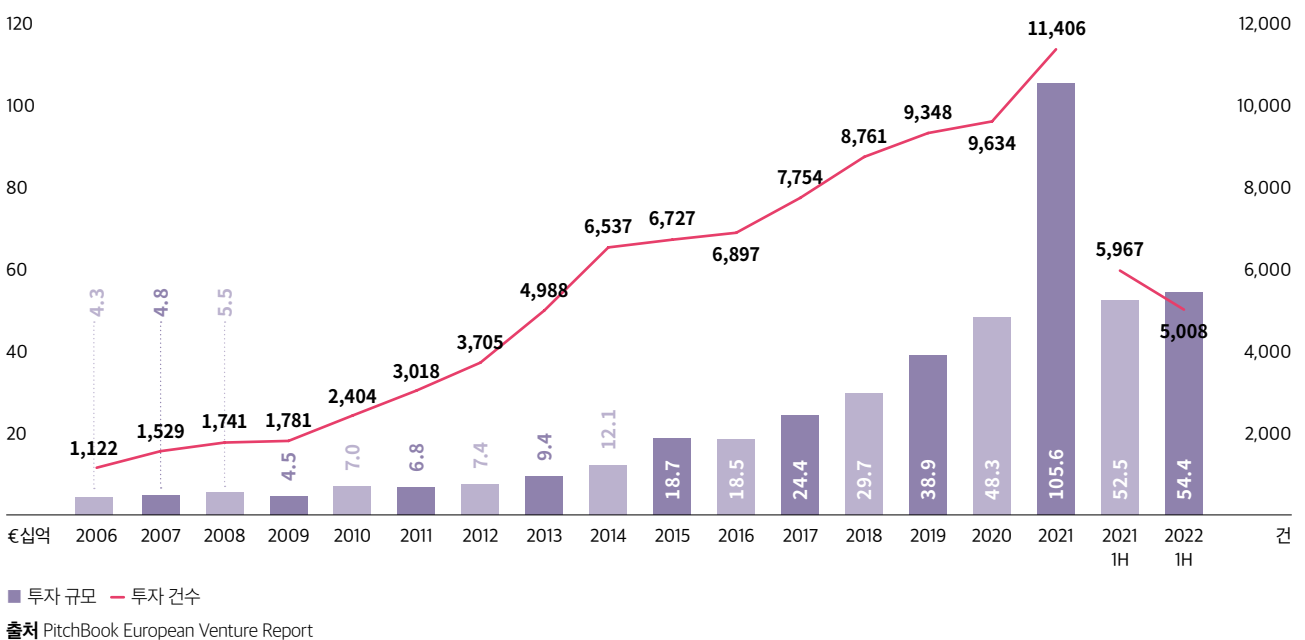


투자(Deal)

2022년 상반기 유럽에서는 544억 유로(5,008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투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지만, 투자 규모는 3.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연속으로 투자금액 1,000억 유로 이상, 투자 건수 10,000건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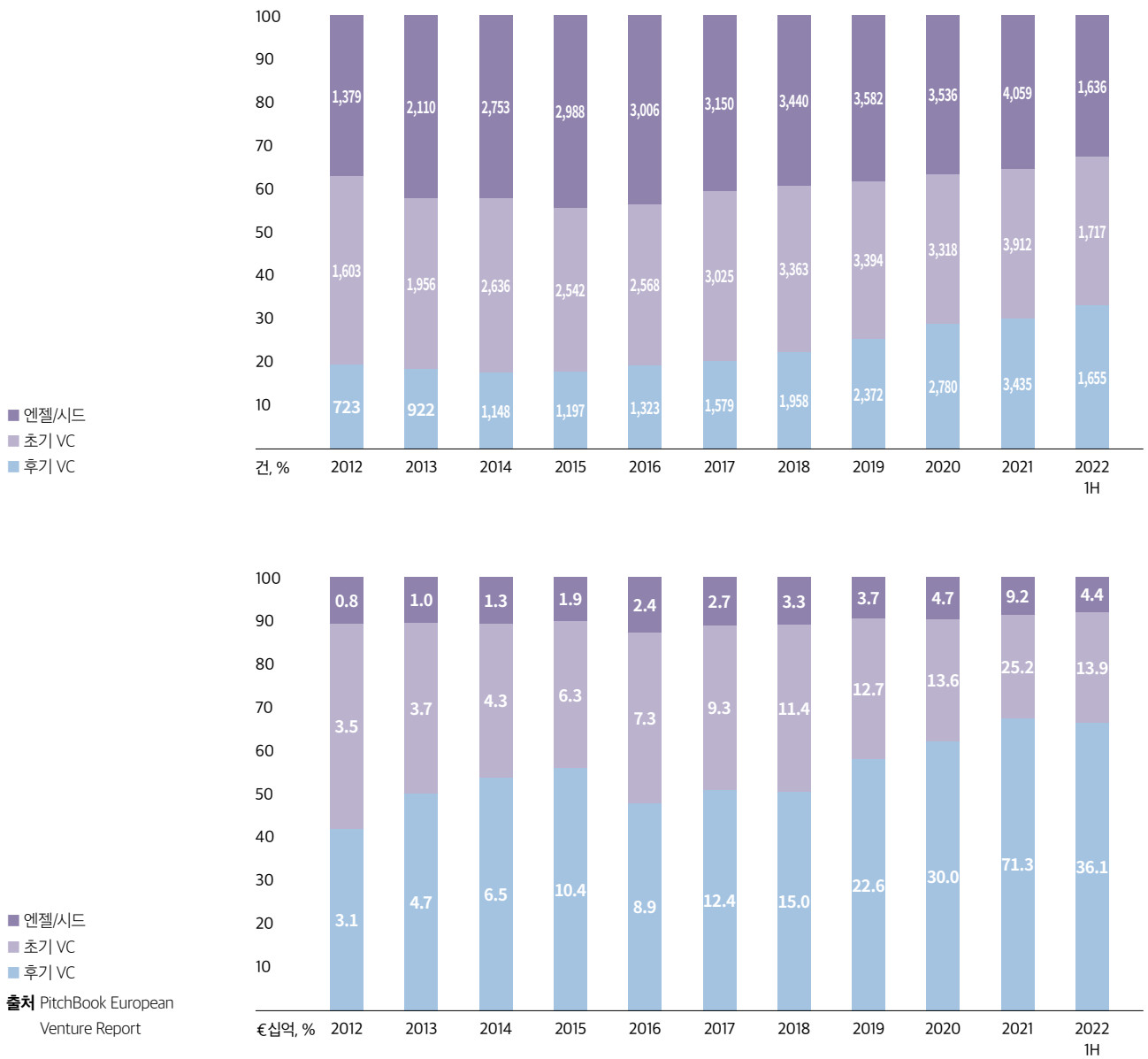
2022년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대폭 줄어든 경제 성장 전망, 임박한 경기침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드라이파우더와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장기 투자의 기회 등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의 투자 실적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분기에는 257억 유로의 투자금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1분기 대비 10.6% 감소한 수치이다. 추후 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로 진입한다면 투자실적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그림 4 — 유럽 VC 투자 현황



2022년 상반기에 후기 VC 투자는 361억 유로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투자금액의 66.3%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의 후기 단계 투자는 대형 VC 펀드와 국제 투자자,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특히 지난 2년간 디지털 기업의 높은 성장률, 투자자 간 투자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후기 단계 기업들의 기업가치와 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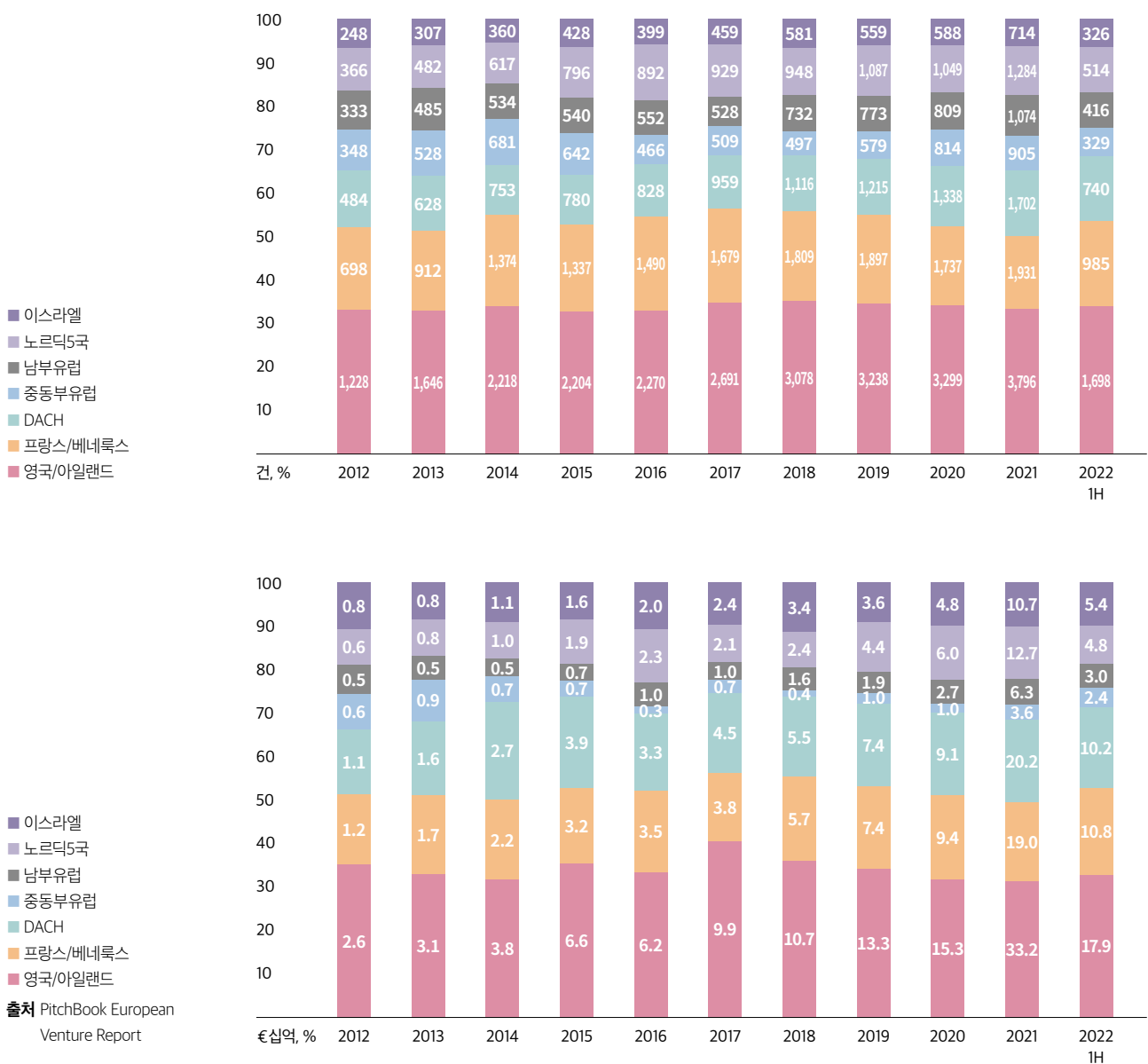
그림 5 - 유럽 VC 단계별 투자 현황



2022년 2분기에 유럽의 주요 투자를 살펴보면, 베를린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Trade Republic은 최근의 라운드를 연장하여 2억 5,00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자받아 11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산화탄소 감소 기업인 Climeworks는 5억 9,070만 유로를 확보하였고, 전기차 제조업체 Rimac Automobili는 5억 유로를 투자받았으며, BNPL(Buy Now Pay Later) 톨을 제공하는 기업인 Scalapay는 4억 8,620만 유로를 조달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상반기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유럽 전체 투자 규모의 32.8%에 해당하는 179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럽 최대 VC 생태계의 지위를 굳혔다. 프랑스/베네룩스와 DACH 지역은 각각 108억 유로와 102억 유로의 투자금액을 기록하며 견고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54억 유로를 기록한 이스라엘과 48억 유로를 기록한 노르딕 5국이 있다. 각 유럽 지역의 투자 규모의 비중은 2021년과 대략 일치하며, 이는 국가별 VC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생활 물가 상승,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영향 등의 도전에 직면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6 — 유럽 지역별 VC 투자 현황: (상) 건수 기준 (하) 금액 기준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2022년 상반기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424억 유로(1,921건)의 투자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가 각각 12.1%, 24.5% 증가한 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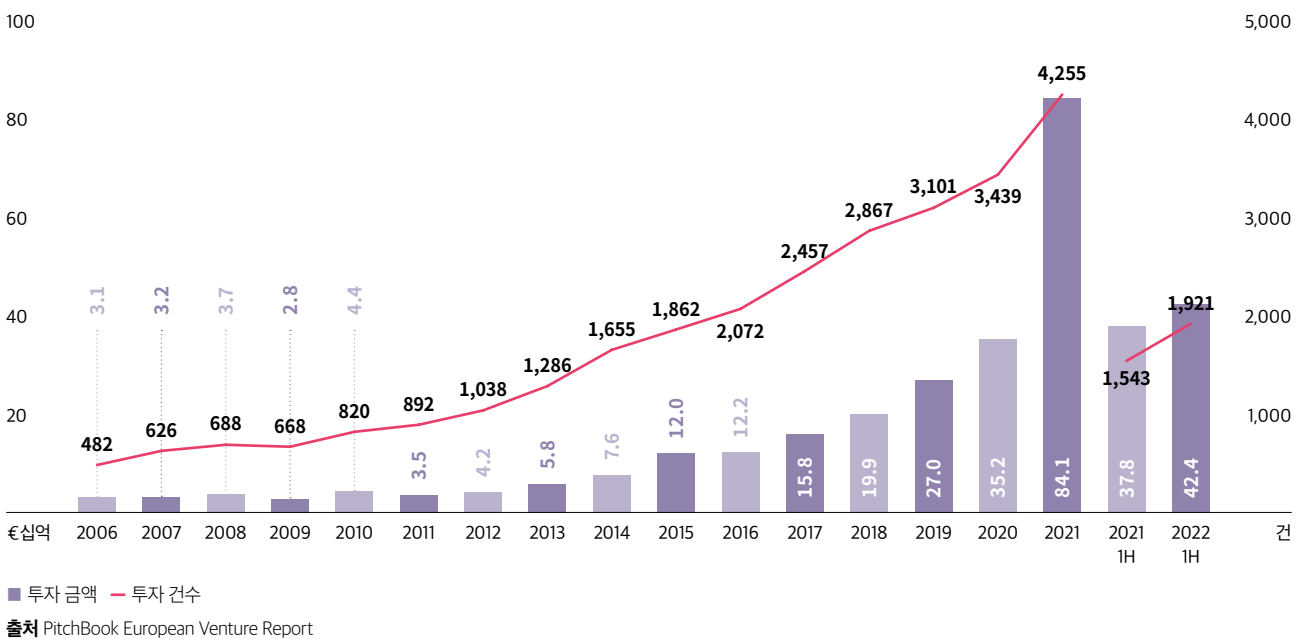
VC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최첨단 기술의 활용, 야심찬 시장공략 등은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다.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자 풀의 일부를 형성하며 자본과 전략적 지침, 채용과 멘토링 및 확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상당한 자본유보금을 통해 스타트업에 인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내부 부서를 출범시키는 것보다 시장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분기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거래 중 주목할 만한 투자는 크로아티아에 본사를 둔 전기차 제조업체인 Rimac Automobili의 5억 유로 규모의 라운드이다. 이는 비전통적 투자자인 Porsche Ventures(Porsche의 VC 자회사)와 SoftBank의 Vision Fund 2, Goldman Sachs로부터 유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Rimac Automobili는 새로운 자금을 전기차 부품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포르쉐와 같은 유명 브랜드와의 제휴는 인지도를 높이고 업계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클라우드 기반 बैं킹 플랫폼 Think Machine이 24억 유로의 기업가치로 1억 5,100만 유로를 확보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Temasek Holdings, Intesa Sanpaolo, Morgan Stanley 등의 금융기관(FI: Financial Institution)으로부터 받은 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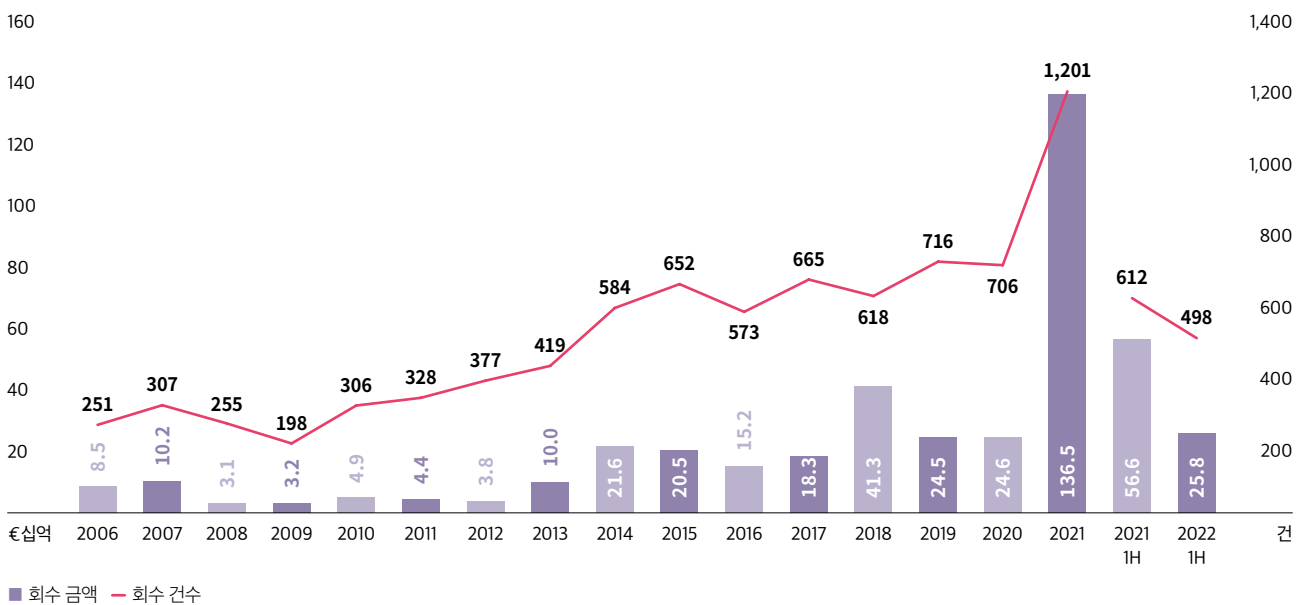
그림 7 —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회수(Exit)

2022년 상반기 유럽 VC 시장에서는 총 258억 유로(498건)가 회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566억 유로(612건)에 비해 54.5%(18.6%) 하락하여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년은 상반기는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불안정한 주식시장,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에는 도전적인 회수환경이었다. 경제는 침체기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기업 상장을 꺼려왔다. 그러나 현재 추세를 연말까지 유지한다면 기록상으로는 2022년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내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림 8 — 유럽 VC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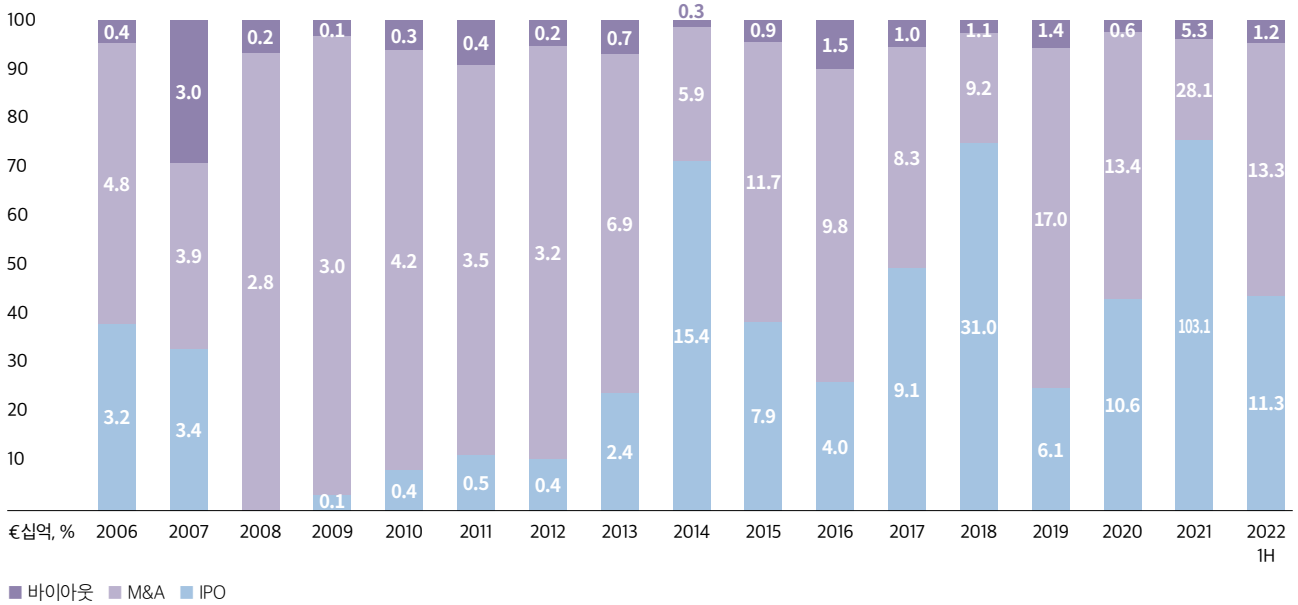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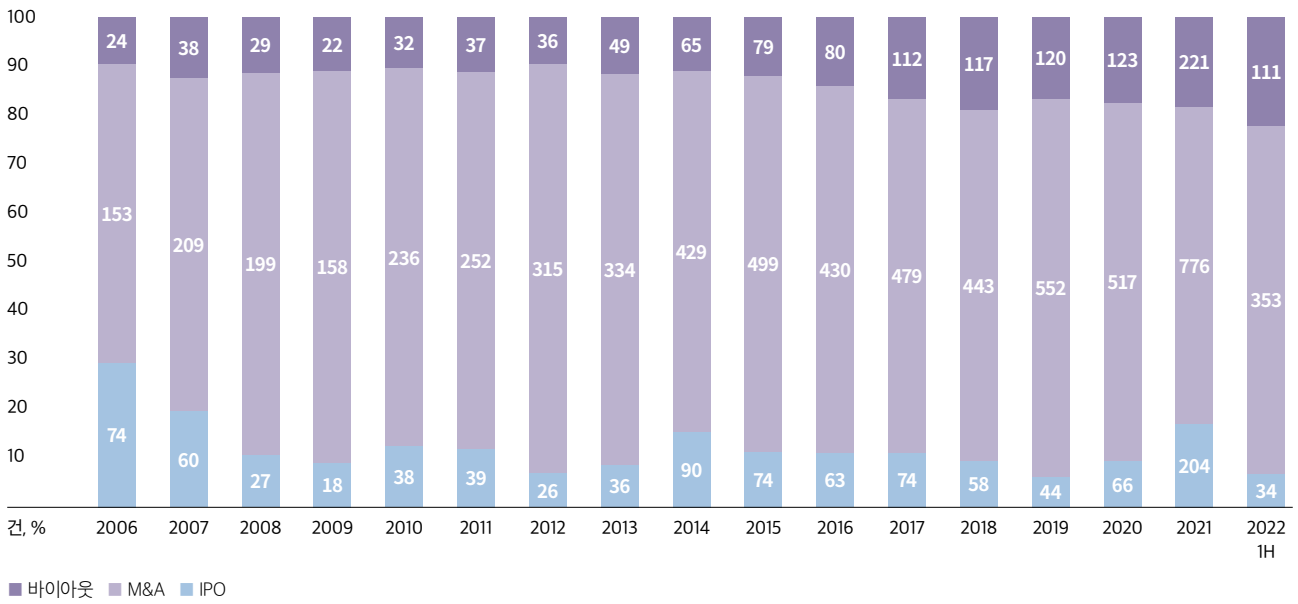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작년 한 해 동안 204건의 IPO를 통해 1,031억 유로를 회수하며 금액 기준으로 전체 회수 중 75.5%를 IPO가 차지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단 34건의 IPO를 통해 113억 유로를 회수하며 전년 대비 31.6%p 하락한 43.9%를 기록했다. IPO를 통한 회수는 2022년에 급속하게 냉각되어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2022년 2분기에 상장된 기업 중 하나는 녹색 수소 생산 기업인 Lhyfe인데, 3억 80만 유로의 투자이전(pre-money) 기업가치로 상장하였다.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와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락다운(봉쇄조치)의 혜택을 받는 특정 부문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수가 활발해졌다.

이번 분기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회수 활동 중 하나는 음식 배달 회사 Wolt가 미국에 본사를 둔 DoorDash에 의해 33억 유로로 인수된 것이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빠르게 성장해왔고, 그에 따라 여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음식 배달 및 모빌리티 회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과포화된 기업들의 경쟁에 따라 M&A 등의 추가적인 회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 유럽 VC 회수 유형별 현황 (상) 건수 (하) 금액 합계 기준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03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State of Venture Report 2022년 2분기)

투자

* State of Venture Report는 CB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2분기 동안 세계적으로 총 1,085억 달러(7,651건)가 투자되었다.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 모두 전년 동기의 1,524억 달러(8,161건)에 비해 28.8%(6.2%) 하락하였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3.4%(14.9%) 하락한 것으로, 투자 건수는 3분기 연속, 투자금액은 2분기 연속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분기의 지역별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529억 달러(2,698건), 아시아가 270억 달러(2,630건), 유럽이 227억 달러(1,705건), 캐나다가 20억 달러(159건),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이 23억 달러(224건), 호주가 7억 달러(106건), 아프리카가 8억 달러(129건)를 기록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직전 분기에 비해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이 하락하여, 세계적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2분기의 메가-라운드 실적은 총 505억 달러(250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870억 달러(379건)에 비해 42%(34%) 감소하였고, 2021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으로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메가-라운드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260억 달러(125건)를 기록하며 메가-라운드 시장을 선도하였고, 아시아가 112억 달러(57건), 유럽이 110억 달러(53건), 캐나다가 8억 달러(5건),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이 9억 달러(7건), 호주가 1억 달러(1건), 아프리카가 4억 달러(2건)의 투자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1 — 2분기 글로벌 투자 유치 상위 10개 기업(2022년 2분기)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십억)	투자자
Epic Games	미국	게임	2.00	Sony, KIRKBI
SpaceX	미국	우주항공	1.70	Undisclosed Investors
VerSe Innovation	인도	모바일 서비스	0.80	CPP Investments, Baillie Gifford & Co., Sofina, Luxor Capital Group
Intersect Power	미국	재생에너지	0.75	The Rise Fund, Climate Adaptive Infrastructure, Trilantic Capital Partners
Coda Payments	싱가포르	인터넷 소프트웨어	0.69	Insight Partners, Apis Partners, GIC, Smash Ventures
PhotonDelta	네덜란드	반도체	0.68	Undisclosed Investors
CanSemi	중국	반도체	0.67	GAC Capital, Utrust, Lanpu Venture Capital, Science City Group, Baic Capital
Resilience	미국	바이오	0.62	Undisclosed Investors
ALLEN Career Institute	인도	인터넷 소프트웨어	0.60	Bodhi Tree
Ultima Genomics	미국	바이오	0.60	Andreessen Horowitz, Lightspeed Venture Partners, D1 Capital Partners, Founders Fund 등

유니콘

2022년 2분기에는 85개의 기업이 새로운 유니콘이 되면서 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2분기 기준 전체 유니콘 기업 수는 1,170개사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1분기 동안 신규 유니콘은 미국에서 49개, 유럽에서 16개, 아시아에서 15개,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4개, 아프리카에서 1개가 나타났다. 2022년 2분기 기준 지역별 전체 유니콘 수는 미국 629개, 아시아 322개, 유럽 154개,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33개, 캐나다 19개, 호주 8개, 아프리카 5개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기준,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중국의 ByteDance(\$1,400억), 미국의 SpaceX(\$1,270억), 중국의 SHEIN(\$1,000억)의 순으로 나타나 미국의 Stripe(\$950억)가 4위로 밀려났다. 이번 2분기에 새롭게 유니콘 기업이 된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세이셸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 KuCoin(\$100억), 미국의 건설 기업 The Boring Company(\$57억), 스위스의 과학기술 기업 SonarSource(\$47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

2022년 2분기에는 총 2,502건의 M&A, 132건의 IPO, 14건의 SPAC 상장을 통한 회수 거래가 발생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최근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회수시장의 침체기를 보여주었다.

2022년 2분기 기준, 회수 유형별로 주목할 만한 회수 거래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의 경우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인 Affinivax이 33억 달러에 GSK에 의해 M&A된 것과, 호주의 모바일&통신 기업인 Unifi Group이 28억 달러에 MBC BidCo에 의해 M&A된 것, 그리고 독일의 헬스케어 기업인 CordenPharma International이 26억 달러에 Astorg Partners에 의해 M&A된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IPO의 경우 중국의 반도체 기업 Vanchip이 40억 달러, 중국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인 Loongson Technology가 36억 달러,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Novosense가 35억 달러 규모로 IPO에 성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분기에 특징적인 점은 IPO 기업가치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SPAC 상장의 경우 이스라엘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인 Pagaya가 85억 달러, 대만의 자동차&운송 기업인 Gogoro가 24억 달러,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헬스케어 기업인 Alvotech가 23억 달러 규모의 SPAC 상장 성공한 것 등이 주요 사례이다.

04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2년 8월 4일 기준)

* CB Insights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2월 중기부가 추가로 발표한 유니콘 기업으로서 티몬, 직방, 당근마켓, 빗썬코리아, 기업명을 비공개한 1개사가 있다. 이들과 포함하면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18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2022년 8월 4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48개국에서 배출한 1,178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3조 8,2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된 기업은 총 15개*이며 이들의 기업가치는 총 296억 달러에 달한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토스(54억 8,000만 달러), 옐로모바일(40억 달러),마켓컬리(33억 달러), 위메프(23억 4,000만 달러), 무신사(22억 달러), 직방(19억 3000만 달러), 버킷플레이스(14억 달러), 리디(13억 3,000만 달러), GP클럽(13억 2,000만 달러), 엘앤피코스메틱(11억 9,000만 달러), 쏘카(10억 7,000만 달러), 에이프로젠(10억4,000만 달러), 아놀자(10억 달러), 두나무(10억 달러), 아이지에이웍스(10억 달러)가 존재한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데카콘 기업은 총 56개이며,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32개, 중국에 소재한 기업이 12개(홍콩 포함), 영국에 소재한 기업이 4개, 인도에 소재한 기업이 2개, 그리고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터키, 바하마(Bahamas), 세이셸(Seychelles)에 각각 1개가 존재한다.

표 1 —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가치 총계
미국	633	2,064.4
중국(홍콩 포함)	180	693.4
인도	69	197.1
영국	46	205.5
독일	29	78.9
프랑스	24	58.4
이스라엘	22	45.7
캐나다	19	49.2
브라질	17	40.1
한국	15	29.6
싱가포르	13	20.8
호주	8	54.4
스웨덴	8	23.6
멕시코	8	18.7
네덜란드	7	22.5
인도네시아	6	28.0
스위스	6	12.3
아일랜드	6	10.1
일본	6	8.8
노르웨이	5	5.7
핀란드	4	12.5
스페인	4	6.2
터키	3	15.8
벨기에	3	9.0
콜롬비아	3	7.4
아랍 에미리트	3	5.1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출처 CB Insights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해당 보고서는
매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2년 2분기(4~6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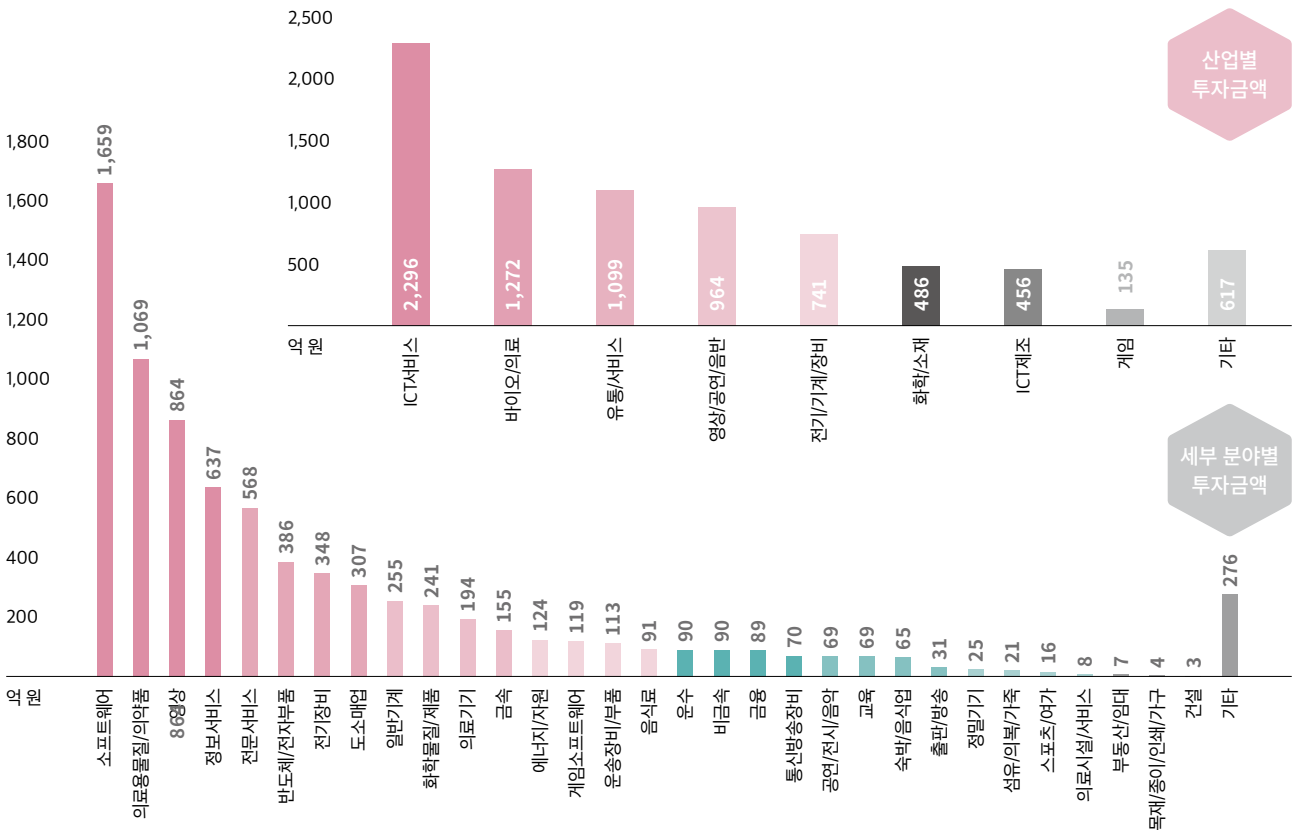
2022년 2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2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482개(-8.7%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8,066억 원(-11.8%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1년 이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하락세로 방향성이 변동된 것으로 보여지며, 당기에는 16.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 소폭 하락하였다.

산업별로는 ICT서비스(2,296억 원, +6.9% YoY)가 유일하게 2천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바이오/의료(1,272억 원, -41.5% YoY), 유통/서비스(1,099억 원, -30.6% YoY)가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다만, 바이오/의료 및 유통/서비스에 대한 투자심리 냉각이 가속화되면서, '19년 이래 상기 세 업종의 투자 비중의 합이 항상 60% 이상 크게 상회하였으나, 당기에는 57.9%를 기록하였다. 방향성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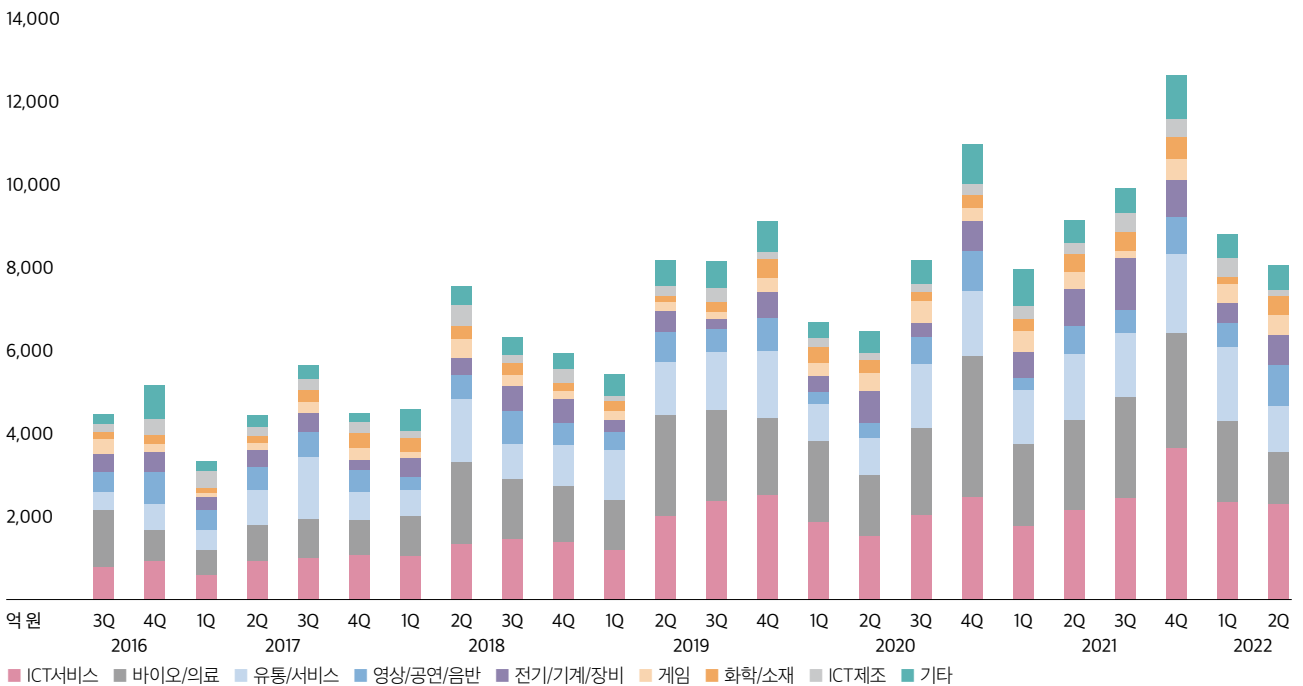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1,659억 원, +11.8%YoY), 의료용물질/의약품(1,069억 원, -34.7% YoY), 영상(864억 원, +39.6%YoY) 순이었다. 소프트웨어나 의료용물질/의약품의 경우 최근 5년간 항상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영상의 경우 직전분기 대비 투자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3위를 기록하였다.

표 1 — 2022년 2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1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천만 원이 감소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제조로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28.5억 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전기/기계/장비가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24.7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게임의 경우 당기의 평균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2% 하락한 11.2억 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림 2 -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 2022년 2분기 말 기준 보고된 금액으로 분기별 수치는 해당 분기에 발간된 마켓위치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출처 한국벤처투자

2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건수를 기록했다. 다양한 업종에서 메가딜이 발생하였으며, 단일금액으로는 VP(Virtual Production) 및 VFX(Visual Effects) 제작업체가 3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표 1 — 2022년 2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 합계	8,066	482	16.7
ICT서비스	2,296	144	15.9
소프트웨어	1,659	96	17.3
정보서비스	637	48	13.3
바이오/의료	1,272	72	17.7
의료용물질/의약품	1,069	52	20.6
의료기기	194	18	10.8
의료시설/서비스	8	2	4.2
유통/서비스	1,099	81	13.6
전문서비스	568	39	14.6
도소매업	307	33	9.3
운수	90	3	30.1
교육	69	3	23.0
숙박/음식업	65	3	21.7
영상/공연/음반	964	71	13.6
영상	864	58	14.9
공연/전시/음악	69	10	6.9
출판/방송	31	3	10.2
전기/기계/장비	741	30	24.7
전기장비	348	8	43.5
일반기계	255	13	19.6
운송장비/부품	113	8	14.1
정밀기기	25	1	25.0
화학/소재	486	20	24.3
화학물질/제품	241	15	16.1
금속	155	3	51.7
비금속	90	2	45.0
ICT제조	456	16	28.5
반도체/전자부품	386	13	29.7
통신방송장비	70	3	23.3
게임	135	12	11.2
게임소프트웨어	119	9	13.2
스포츠/여가	16	3	5.3
기타	617	36	17.1
에너지/자원	124	4	31.1
음식료	91	9	10.2
금융	89	3	29.7
섬유/의복/가죽	21	2	10.7
부동산/임대	7	2	3.5
목재/종이/인쇄/가구	4	1	4.0
건설	3	1	3.3
기타	276	14	19.7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2022년 2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ICT서비스	#B2B 이모티콘 솔루션 #소셜 핀테크 플랫폼 #모바일 여권서비스 및 텍스페이솔루션 #인도네시아 선불충전 플랫폼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식당 예약관리 솔루션 #필리핀 모바일 상품권 #AI 개발용 학습데이터 구축 #딥러닝 기반 오타방지솔루션 #자동차 보안솔루션 #AR솔루션 #의료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실내골프장 비교/예약 플랫폼 #반도체 제조공정 시솔루션 #프랜차이즈 정보 플랫폼 #온라인 팬덤 플랫폼 운영 #VDI 통합관리 솔루션 #온라인 채권추심 플랫폼 #헬스케어 O2O플랫폼 #위성지상국 서비스 및 위성데이터 수신/처리/활용 서비스
바이오/의료	#MRI 조영제 #PROTAC기반 신약 개발 #계양성 대장암 치료제 후보물질 #마이크로 니들 기반 백신 및 치료제 #Si기반 단일화합물 및 복합제 예측 시스템 #줄기세포 기반 희귀난치성 치료제 #MDSC 면역항암제 #체세포 리프로그래밍 플랫폼 기반 세포치료제 #RNA 유전자 치환 치료제 #UniStac 기반 신약 #NAD+ Modulator 기반 신약 #난치성 뇌질환 및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연구용 생체레이저현미경 #플라즈마 기술 기반 의료기기 #CRISPR 유전자가위 기반 진단키트 #비접촉식 수면 진단/분석
유통/서비스	#콘텐츠제작 및 IP기반 커머스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IP 수익 #와인수입 및 유통 #인플루언서 기반 커머스 #폴필먼트 #복미 물류 중개 #독서실 #공간개발/식음료 브랜딩
영상/공연/음반	#영화제작 및 배급 #STEM 콘텐츠 #VP 및 VFX 콘텐츠
전기/기계/장비	#특수기능성 폴리머시트 #수냉식 연료전지 파워팩 #전동주축시스템 #플라즈마 탄소전환장치 모듈 #초소형 위성
화학/소재	#반도체 및 산업용 특수가스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흡착제 #H&B 제품 제조/판매 #CMP공정 소재 #OLED 증착공정 응용부품 #폐유리 재활용 #2차전지 분리막코팅
ICT제조	#MLCC 및 반도체세라믹 부품 #반도체 테스트 #마신비전 기반 검사장비 #Si반도체 설계 및 생산 #디스플레이 프로브유닛 및 MEMS #EUV검사장비 #비접촉식 수면 진단/분석
게임	#게임QA #테마파크 콘텐츠제작
기타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재활용 #열분해유 #비건치즈 #외환송금 및 결제 #이동형 모듈러

